

세미나자료 2010-07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녹색성장시대 육아정책의 비전과 역할

2010. 12. 6(월) 13:30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세미나자료 2010-07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녹색성장시대 육아정책의 비전과 역할

2010. 12. 6(월) 13:30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 일시: 2010. 12. 6(월) 13:3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1:30~2:00	등 록	
2:00~2:05	개 회	사회: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5~2:15	인 사 말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
2:15~2:40	축 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두언 국회의원 /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상희 국회의원 /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박용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2:40~3:20	기조강연	녹색성장, 정책의 개념과 구성 김형국 초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3:20~4:00	주제발표 1.	수목과 목재에서 자연과 생활을 배우는 유아환경교육 야마시타아키노리 시마네대학 교수(山下晃功 島根大學 教授)
4:00~4:30	주제발표 2.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4:30~4:50	휴 식	

4:50~5:30	종합토론	좌장: 이영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명환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중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장 (이름 가나다순)
5:30~5:40	질의응답	
5:40	폐 회	

차례

기관소개	육아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조강연	녹색성장, 정책의 개념과 구성	7
	김형국 초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1.	수목과 목재에서 자연과 생활을 배우는 유아환경교육	19
	야마시타아케노리 시마네대학 교수(山下晃功 島根大學 教授)	
주제발표 2.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	29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이명환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59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65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70
	최윤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장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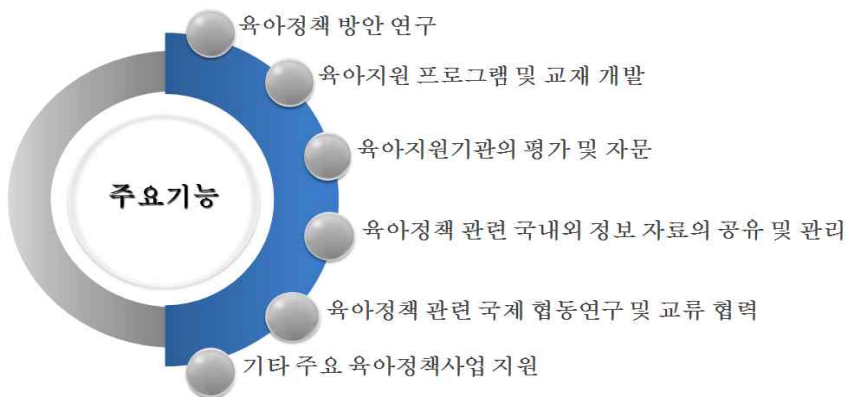
기관소개

**육아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 연혁

2005. 9. 30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협력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5. 11. 9 육아정책개발센터 초대 이 옥 소장 선임
2005. 12. 28 육아정책개발센터 개소, 보육시설평가인증 업무 위탁
2006. 12. 22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육아정책의 비전과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역할
2006. 12. 28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업무 위탁
2007. 12. 13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육아정책세미나 개최
육아 선진국을 향한 자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2008. 9. 5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협력기관 변경
협력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2008. 12. 3 창립 3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역할과 과제
2009. 12. 28 기관명 개칭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연구소
2010. 1. 26 유아교육선진화사업단 발족식 개최

2 주요기능



3	2010년도 주요사업
---	-------------

번호	기본연구사업
1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2	국가수준의 유치원평가 체계화 연구
3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지원방안 연구
4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5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6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일반연구사업	
7	한국아동패널 2010
8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I)
9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형 적용 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II)
10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11	육아정책 의사소통 창구 KICCE i-POL 운영 사업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1	유치원평가와 종합컨설팅 연계지원 방안
2	유아 외국어교육실태 및 대책
3	유치원 교육과정개편 방안
4	유아교육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5	유치원 종일제 운영 모형 개발
6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7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개발
8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9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사업 홍보
수탁연구사업	
1	소규모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연구
2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방안
3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질제고 방안
4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개편
5	표준보육과정 개정 방안연구
6	다문화가정 유아대상 프로그램 개발·보완
7	다문화가정자녀 양육지원방안: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8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 안내책자 제작 및 보급
9	저소득층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효과 연구
10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조정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11	보육종사자 윤리강령 개발연구
12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

4	2011년도 주요사업
---	-------------

번호	기본연구사업
1	유아지원인력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2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단·중기 전략
3	육아지원기관 행·재정 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4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 및 증진 방안 연구
5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6	녹색성장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의 대응 방안
7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요구
8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강화 방안
9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10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11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12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
13	통일에 대비한 영유아 양육에 관한 남북한 비교 연구
14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일반연구사업
15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Ⅲ):
16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Ⅱ)
17	육아정책 의사소통 창구 KICCE i-POL 운영 사업
18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적용 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Ⅲ)
19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아동발달 단계별 접근
20	한국아동패널 2011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
1	2011 유아교육 연차 보고서
2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인증제 2차 시범 운영
3	교육과정 내실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4	만 5세 유아교육·보육 표준과정 연구
5	유아교육 성과 전시·우수사례 발표
6	유치원 100년사 특별기획전



기조강연

녹색성장, 정책의 개념과 구성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초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녹색성장, 정책의 개념과 구성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초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화석 연료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어렵다

녹색성장 정책의 출발 배경은 간단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마디마디에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能源(에너지)’이란 중국어 번역이 말해주듯 에너지는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거의 모두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름 중심의 화석 연료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 에너지에 계속 매달리면, 세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에서 뼈저리게 당했던 기억이 말해주듯,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름 값이 두바이 기름 1배럴에 95달러를 넘어서면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무역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에너지를 기름에만 의존하는 국민 생활 방식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시켜 지구 온난화를 재촉한다.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지구 온난화마저 일으킨다는 점에서 화석 연료는 이중 함정(double whams)의 근본 원인인 셈이다.

화석 연료 발(發) 기후변화는 다양한 자연 재앙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한반도 땅은 지난 백 년 동안 지구 온도의 평균 온도 상승보다 2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된 탓에 강우량이 7%가 늘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의 수효는 14%가 줄었다.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가물 때는 가뭄이 오래 간다는 말이다.

녹색성장 정책의 골격: 에너지 대책과 기후 대책

그래서 ‘에너지-기후 위기(energy-climate crisis)’라는 말이 생겼다. 문제가 있는 곳에 정책 처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지구가 겪어본 가장 막심한 시장 실패이다. 때문에 강력하고 더 빠른 개입의 편익은 그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Nicholas Ster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8).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란 말이다.

녹색성장 정책이란 화석 연료 의존 방식의 탈피가 주축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온실 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 정책이 근간이다. 에너지 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원인 요법(原因療法)이고, 기후 대책은 기왕에 발생한 문제의 증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증요법(對症療法)이라 말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 및 보급의 두 가닥이 근간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현대 사회가 화석 연료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 그리고 화석 연료가 앞으로 상당 기간 채굴 가능한 경제적 부존자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경제성도 누리고 환경 가치도 키울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는 것이다.

한편 석유의 가채(可採) 연수가 40여년 정도라 하지만 가채 연수가 상당 정도 남아 있는 시점 훨씬 이전에도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지나면 매점(買占)형 수요 급증으로 석유 공급 부족 사태를 빚어져 세계 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피크 오일(peak oil)이론'이다. 이 연장선 위에서 '석유 종말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해저 석유 시추 등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석유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으로 한동안 힘을 잃었다가 2010년에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해저 채굴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석유 종말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대체 에너지로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려 함이 또 하나의 정책 대안이다.

기후 대책 역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정책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두 가닥으로 나뉜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고집한다면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기세 내지 추세를 꺾자는 노릇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고, 추세를 꺾는다 해도 이를테면 이산화탄소가 잔류하는 시한이 200년 전후로 예상된 상황에서 지구 온도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올라간 지구 온도에 우리의 삶이 적응할 수 있는 방도 찾기가 기후 적응 대책이다.

기후 적응 대책의 필요성은 이를테면 지구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가면 벼 수확량이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린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도 수확량이 별로 줄지 않을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적응 대책의 하나이다. 지구 온도 상승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물이다. 물이 넘치는 홍수, 또는 물이 마르는 가뭄이 인간 생존에 지대한 차질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국책 과제를 한국 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은 거의 비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은 서로 밀접히 상관되는 만큼 일석이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가스(HFs, PFCs, SF₆)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은 에너지 사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온실가스 대책이 에너지 대책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해진다.

에너지 대책: 석유 없는 나라의 생존법

녹색성장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가 중요함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단기적, 가시적 그리고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현재 정부가 힘쓰는 분야는 여럿인데 엘이디(LED) 등기구의 보급, 스마트 그리드, 석탄 가스화, 태양광과 풍력과 조력과 조류를 이용한 발전이 대표적이다.

LED 조명 방식은 세계적 혁신이다. 백여 년 전 전기 조명을 출발시킨 백열등에 이어 그 1/3의 전기로 밝히는 형광등이 나왔고, 다시 그 1/3의 전기로 밝히는 LED 조명이 나왔다. 우리도 3년 안에 조명의 30%는 LED등, 70%는 형광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LED 조명은 값이 비싸서 그 보급에 정부 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 부문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어느새 에너지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한 백열등은 2013년부터 생산을 금지하는 규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IT로 제어하는 첨단 방식이다.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L'Aquila)에서 열린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이탈리아와 더불어 분과 의장국을 맡아 '주요 경제국 포럼(MEF)'의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을 공동 작성하였다. 도로 같은 인프라 건설은 인구 밀집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밀도가 곧 효율성'인데,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리 여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전력 및 IT 기술을 세계 경제 대국들이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 국토에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이

를 위해 제주도에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최첨단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201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처지는 일단 출발 분위기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산유국은 실감할 수 있는 미래까지는 석유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제적 관행은 도무지 마땅치 않다고 시큰둥하다. 심지어 지구 온난화는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특히 오일 로비스트(oil lobbyist)들이 반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석유 부존이 전무한 나라이다. 미국처럼 막강한 오일 로비스트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석유 자원 부존이 전무한 나라가 누리는 자유로움이 아닐 수 없다. 이 연장으로 우리 정유 회사들의 행보도 무척 유연하다. 기름 회사는 석유 고갈을 대비해서 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GS칼텍스는 연료 전지 산업에 매달리고 있고 SK에너지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는 ‘무한 동력(endless energy)’이라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도 값이 비싸고 효율상의 문제가 많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급을 늘리자면 보조금 지급 같은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는 훌륭한 우리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음도 특기할 만하다.

기존 에너지원의 청정화는 이를테면 석탄 발전에서 석탄을 바로 때지 않고 가스로 만들어 발전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릇이다. 석탄을 가스로 분해하면 발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 석유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가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따로 뽑아서 플라스틱, 개미산(酸)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청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우리의 기술 수준은 첨단 선진국 수준의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총평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영역은 다양해서 우리도 앞서 가는 분야가 있다. 지금 전라남도 진도 입구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해협에서 시험하는 조류 발전이 그런 가능성의 현장이다. 바닷물을 이용한 발전에는 빠른 물살을 이용하는 조류 발전 말고도 경기도 시화호에서 2010년 말부터 밀물 때 발전할 조력 발전, 파도가 움직일 때 발전하는 파력 발

전 등이 있다.

울돌목 또는 명량(鳴梁)은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승첩지로도 빛나는 성소(聖所)이다. 보름 때 유속이 가장 빨라 무려 시속 40km 속도로 흐르는 곳이다. 힘없는 조선 왕조는 제쳐두고 명나라와 다투어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려 했던 왜군의 계획에 결정타를 안긴 이가 충무공 이순신. 그는 무엇보다 왜의 수군이 한양을 빨리 공략할 수 있는 한강 진입 기도를 막아주었다. 임진년(1592)에 한산대첩 등으로 서해 진출을 막았고, 다시 정유년(1597) 9월에 한양을 재차 함락시키려던 왜의 속전속결 전략을 무산시킨 결정타가 바로 명량대첩이었다.

충무공의 유명 어록은 명량대첩 전후의 것이 가장 많이 지금 우리 입에 오른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명언이나, 원군의 참패 뒤에 남은 겨우 12척을 갖고도 “아직도 열두 전선(戰船)이 있다(尙有十二).” 했던 무척 긍정적인 의연함도 그 즈음의 말이었다.

전인미답의 녹색성장에 성공하려면 충무공이 보여주었던 의연한 낙관론도 꼭 필요하다. 그 결과 울돌목에서 최대 9만 kw, 그리고 물살이 빠른 주변 일대를 모두 활용한다면 발전 잠재량은 약 100만 kw에 이를 것이다. 울돌목이 충무공의 영웅담에 이어 길이 남을 우리 녹색성장의 성지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기후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대중요법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먼저 ‘기후 적응’을 포함한다. ‘4대강 살리기’가 대표적 사업이다. 우리는 그동안 강 관리 대책에 무척 소홀했다. 그 결과 치수 예방 사업비가 복구비의 4배인 일본과는 정반대로 우린 연평균 수해 복구비가 치수 사업비의 3.6배에 이르는 식의 사후약방문으로 일관했다. 건설 행정 관행이 도로를 닦으면 전시 효과로 빛나지만 물길을 닦으면 그 투자 사업의 성과가 ‘수몰(水沒)’된다고 여겨 소홀했지 싶다.

그렇게 ‘죽어가는’ 강으로는 영산강이 대표적이다. 갈수기는 강이 아니고 웅덩이이다. ‘농도(農道)’ 전담을 위해 진작 영산강 상류에 나주 댐, 장수 댐 등 농사용 댐과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들을 관장하는 부처는 농림부 쪽이고, 영산강의 수질 정화를 위해 유지(維持) 용수가 필요한 부처는 환경부다. 농림부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속앓이를 하던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탄력을 받아 상류 4개 댐과 10개 저수지의 독을 높여 강류 정화에 필요한 유지용수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의 또 한 축은 '온실가스 감축', 곧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다. 기온 상승에 대해 한편에선 적응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편에선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은 언뜻 서로 모순되게 보인다. 그러나 “가장 교묘한 것은 서투름과 닮았다(大巧若拙)”는 노자(老子)의 설파처럼 ‘반대의 일치’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다.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관성에 한편으로 적응하면서 또 한편으로 상승의 기세를 꺾는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장소적 대상은 단연 도시이다. 90%를 상회하는 우리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에 자리한 일자리 산업, 잠자리 주택, 직주(職住)를 잇는 교통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 주택, 교통을 녹색화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우리 일상에 가까이 그리고 조만간 실현할 수 있는 부문은 주택의 녹색화이다. 단열(斷熱)을 단단히 하면 에너지를 20% 이상 줄일 수 있고, 장차 지열, 태양열, 태양광, 풍력을 적극 이용하면 외부 에너지원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도 안락한 주거 생활을 꾸릴 수 있음이 구체적으로 실증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은 온난화가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지난 백년 간 지구 온도가 0.74°C 높아진 것도 심상치 않은데, 한반도는 그 배가 넘는 1.7°C나 올랐다. 이 땅이 심각한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했다는 말이다.

드디어 2009년 11월 7일 정부는 “미래는 불확실성 투성이다. 그런 미래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IPCC의 발전도상국에 대한 최대 권고치인 30%를 감축하겠다고 결단했다. 2020년의 추세추계(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의 100년 간 누적 배출 세계 22위, 이산화탄소 배출 2007년 세계 9위를 기록한 국가가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결단은 한반도를 포함한, 빈발하는 지구적 이상 기후의 재앙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일조하려는 거보(巨步)라고 하겠다.

경제 구조 선진화와 녹색 뉴딜

한국은 근간이 되는 정책과 별도로 파생 정책도 적극 마련했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 대책에서 비롯되는 각종 과학 기술을 산업 진흥으로 연결시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국가 경제 구조 선진화 정책 그리고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

의 공존만으로 한정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성을 고려한 녹색 뉴딜 정책이 그것이다.

선진화 정책에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가 우선 관심의 대상이다. 1차 산업으로 돼지 분뇨에서 가스를 추출하여 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2차 산업의 경우 이를테면 포항제철이 개발한 신기술 파이넥스(FINEX)를 들 수 있다. 파이넥스는 이산화탄소 발생의 70%를 줄이는 한편 제조 원가도 15% 절감이 가능한 차세대 철강 제조 기술이다. 3차 산업으로 말하자면 재택 근무나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활성화하여 교통 수요를 줄임으로써 생활의 녹색화를 촉진할 수 있다.

녹색 기술의 신성장 동력화는 2010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핵심 녹색 기술의 성장 동력화'란 이름으로 제시한 10대 핵심 녹색 기술이 주축이 될 것이다. 이차 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스마트 그리드, 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그린 IT, 태양 전지, 그린 카, 연료 전지가 10대 핵심 녹색 기술들이다. 이 열 가지에 정부의 연구비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이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를테면 소형 이차 전지의 경우 한국의 두 선두 업체가 생산 기술의 우수성에 힘입어 세계 제품 시장의 38% 가량을 점유하고 있지만, 실질 국산화율이 20% 미만인 까닭에 전지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수입이 확대되는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경우도 포집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저장 및 대규모 실증 경험이 부족한 것이 당면 문제점이다. 원천 기술로 말하자면 분리막 소재 개발, 습식(탄산칼륨) 흡수제 개발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음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지속 가능 발전이란 경제와 환경과 사회의 세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지는 못하다. 녹색성장 정책은 그 가운데 '사회 가치'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등장한 보완 정책이 '녹색 뉴딜'이다. '뉴딜'이란 정부 투자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동시에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의 녹색 뉴딜 대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뿐 아니라 맑은 물을 필요량만큼 확보하려고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직간접의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녹색 일자리는 무엇보다 중급 기술직에다 현지 인력임이 큰 미덕이다.

춥지 않은 회춘 골짜기의 올해 겨울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자면 그 배경이었던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미국 국방성 정보 당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의 도래라고 했다. 발농사와 글농사를 병행했던 덕분에 예감이 비상했던 한국의 소설가 박경리(1925-2008)는 <회춘 골짜기의 올해 겨울>이라는 시에서 기후변화의 일단에 대해 “...자본주의의 출구 없는 철옹성/ 온난화 현상이 일렁이며 다가온다/ 문명의 참상이 악몽 같이 소용돌이친다/ 춥지 않은 회춘 골짜기의 올해 겨울”이라며 비감하게 적었다.(『박경리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마로니에 북스, 2008, 114-115)

그러나 자연으로 먹고사는 농부나 어부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일반적 반응은 기후변화를 고작 날씨(weather) 이변 정도이지 지구가 전반적으로 데워지는 온난화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기후(climate)를 말하면 ‘구름 잡는 소리’ 곧 허황된 생소리로 치부하곤 한다. 선진국 사정도 이와 비슷한 탓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한 영국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가 ‘기든스의 역설(Giddens’ paradox)’라는 낱말로 낭패감을 토로하였다. 전문가의 경고를 보통 사람들의 ‘만보적(漫步的) 관찰’로 간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보면 녹색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전문가의 경고를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 탄소 줄이기 생활에 앞장선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로컬푸드, 대중교통 등을 선호하면서 녹색 생활을 실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동안 녹색 생활에 앞장서다가도 “내 조그마한 행동이 대세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푸념하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한다면 동양 전통의 우리 사회는 사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다. 동양은 아무래도 자연 극복적 삶보다 자연 순응적 삶을 살았고, 특히 우리는 전래적으로 물난리 수재, 바람 난리 풍재, 전쟁이 발발하는 화재 곧 삼재(三災)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삼재를 천재라 여기는 한편으로 그것이 인간 세상의 업보로 말미암았다고 인재(人災)라는 인식도 깊었다. 이런 민간 역사를 기억한다면 기후변화를 사람 탓이라 여기는 발상법이 우리의 문화 유전 인자로 내재화되었지 싶고, 언젠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잠재력

에너지-기후 시대에 즈음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초우위(超優位)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시시비비,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다. 정반(正反)을 두고 다투다가도 이를테면 바깥에서 불이 나서 “불이야!”하는 외침을 들으면 함께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런 상황 발생이 초우위 목표이다. 동양 사상에선 이런 처지를 '권도(權道)'라 말한다. '정당한 목적의 실현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이다. 남녀 유별을 강조하던 유학(儒學)에서 맹자(孟子)는 “남녀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직접 손을 맞대지 않는 것은 예(禮)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서 건져주는 것은 권도”라고 했다.

우리 녹색성장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인류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한다. 따라서 일말의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는 확실했던 과거의 실적에서 탄력을 얻어야 한다. 한국의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낸 20세기 세계 유일의 성공 사례이다. 거기엔 두 번의 녹색 혁명 성공도 포함되어 있다. 주곡 자립과 산림녹화의 빛나는 실적이 그것이다.

가까이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우리 주곡 생산은 크게 피해를 입고 미국의 곡물 무상 원조에 오래 의존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1970년대 초입까지 백성들은 보리 고개에 시달렸다. 수요 억제책에 더해 강력히 추진된 생산 증대책은 통일벼 보급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 본부를 둔 국제 미작 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받아 1972년부터 보급한 통일 쌀은 1977년에 쌀 생산량이 일본의 4.78톤을 상회하는 ha당 4.94톤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선정한 국가 연구 개발 반세기의 '10대 성공 사례' 하나로 '통일벼 개발'을 뽑은 것은 당연했다.

한국의 산야가 험벗기는 이미 19세기 말에 뚜렷했다. 1894년 초에 서울을 찾은 영국 여류 지리학자 비숍의 첫 인상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저기에 소나무 그들이 있으나 거의 별거벗었다.” 했다. 고종 임금도 “도성 안을 놓고 보더라도 백악, 인왕, 남산, 낙산의 사산(四山)에 소나무를 길러 울창하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땅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몇 그루인가를 셀 수 있을 만큼 적어졌다.”고 개탄했다.

우리 산림녹화는 3공화국의 기념비적 업적이다. 금수강산이 그렇게 태어났다. 전국 곳곳이 '금강산'으로 변모했다. 세계 식량 기구가 세계 근대화 역사 2백년

에 인공적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영국, 독일, 뉴질랜드에 이어 한국을 손꼽았다.

이런 전력을 바탕으로 지금 매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개연성은 '정치 리더십의 참여(political commitment)'에서 찾아야 한다. 거대 국책 사업의 성공에는 리더십 변수가 으뜸이었다는 것이 대형 국책 사업의 세계적 경험이 말해주는 때문이다. 위정자는 "녹색(생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역설한다. 녹색성장이 리더십의 대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위기는 변화를 요구한다. 화석 연료인 기름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문명사의 필연적 변화이다. 녹색성장 정책이야말로 세계 문명의 필연적 전환의 길이라 하겠다.



주제발표 1.

수목과 목재에서 자연과 생활을 배우는 유아환경교육

야마시타아키노리 시마네대학 교수
(山下晃功 島根大學 教授)

수목과 목재에서 자연과 생활을 배우는 유아환경교육

야마시타아키노리 시마네대학 교수
(山下晃功 島根大學 教授)

지금까지 일본 임야행정은 삼림(수목)에 편중되어 왔다.

- 「森林·林業基本法」에 있어서 삼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법률에 의해, 전국 각지에「**県民의숲**」과「**森林學習館**」등이 설립되어、「**森林지도자**」가 양성되어 왔음.

이처럼 환경교육에서는、삼림(川上)시책의 비중이 컸음.

일본의 임야행정이 목재이용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 1997년 경도의정서에 의한 삼림에서 CO² 3.8% 삭감 이래、임야행정에 일본의 주목을 받게 됨.
- 2005년부터、목재이용촉진 국민운동「**나무사용운동**」이 시작됨.
- 2007년부터、목재이용에 관한 교육활동의 국민운동「**木育**」이 시작됨.

목재이용은 왜, 지구환경에 필요한가? 왜, 주목 받게 되었는가?

- 탄소고정 재료
- 재생산 가능 재료
- 지속가능 순환형 재료
- 제조시의 성(省)에너지 재료

최신 일본에서의 토픽

- 삼림 · 임업재생 플랜 책정
- 10년 후, 목재자급률 20%에서 50%로
- 공공건축물(3계건물 이하) 등에 있어서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성립

목재이용 촉진 바람

유아교육에서의 환경교육(木育)

- 「**숲유치원**」으로 대표되는, 오감을 이용한 자연체험을 중시하는 자연환경 교육이 일본에서도 보급되고 있음.
- **숲(수목)의 환경교육이 중심**
- 그러나, **생활환경(목재)와 자연환경(수목)을 융합·연계된 환경교육(木育)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

지속가능 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유아환경교육(木育)의 필요성

- 원정과, 원 가까이에 있는 숲에는 수목이 가득함.



- 유치원사와 유희실의 실내는 목조로 되어있음.
- 유구, 장난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중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다수 존재함.
- **자연(수목)과 생활(목재)이 융합·연계되는 유아 환경교육(木育)의 구축이 필요**
- ESD의 이념과도 공통됨.

木育교재 「나무로봇」의 개발 (1)

- 유아환경교육용 교재—목재로 제작된 「나무로봇」을 개발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 순환형 자원인 수목의 목재에서 탄생된 「에코·로봇」의 「나무로봇」임.
- 목공만들기 활동도 가능한 「나무로봇」
수목에서의 놀이, 목재의 나무로봇놀이,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과의 연결을 배울 수 있음.

木育교재 「나무로봇」



木育교재 「나무로봇」의 특성 (2)

- 부품은 목재, 나무가지, 나무열매로 되어있음.
- 조립은, 구멍에 둥근 막대기를 꽂음.
- 신체 각부는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음.
- 얼굴표정은 자유로이 변화를 줄 수 있음.
- 나뭇가지, 잎, 열매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서 장식디자인 할 수 있음.
- 조각 천, 털실, 단추 등을 달아서, 자유로이 장식 및 디자인 할 수 있음.

장식한 「나무로봇」



유아기 木育교육에서 키워지는 능력

- 유아는, 자발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연환경과 관계하여, 제감각을 통해 신체로 느끼며, 활동하면서 배워나감.



木育의 유아환경교육 활동 소개

- 숲·수목과의 접촉, 수목과 친해지는 활동
- 시냇물에서의 목재, 대나무를 사용한 물놀이
- 대나무, 목재를 이용한 만들기 활동
- 적목, 목공놀이
- 나무로봇 제작과 만들기 활동

木育의 유아환경교육 활동 사례

1. 숲·수목·대나무와의 접촉활동
 - 시냇물에서의 목재, 대나무를 이용한 물놀이
 - 모두가 탈 수 있는 배 만들기
 - 친구들과 협동해서 만들기
 - 5세아(커뮤니케이션)
2. 대나무, 목재를 이용한 활동

木育의 유아환경교육 활동 사례

3. 적목, 목공놀이
 - 나무로봇은 일본산 노송으로 만들어짐.
 - 유아들은 주변 자연과 생활환경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놀이에 활용함.
 -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놀이를 유발함.
 - 나무로봇은 유아들의 창조성을 키워주는 친구임.

제언

지구환경의 새로운 시점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과의 융합을 목적으로
수목(Tree)과 목재(Wood)로 만들어진
유아를 위한 학습교재로서
「나무로봇」의 제작활동을 제안함.



주제발표 2.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학회, 연구소, 전문가, 유관 정부기관 및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논문,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왔다.¹⁾ 정책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며 연구자로서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다룬 “저탄소 녹색성장” 논의들 대부분이, 현재에 초점을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등장한 배경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가뭄·홍수·폭염, 생태계 파괴 등의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을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 법(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녹색성장위원회)들을 출범시키는 등의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보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문

* 이 원고는 미완성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십시오.

- 1)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개최한 주요 학술대회를 살펴보면 1)녹색성장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2차 동아시아 기후포럼”(6월16일) 2)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UN 경제사회국(UN-DESA) 공동으로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그린코리아 2010’ 국제회의 개최(9월 9일) 3)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로 “폭격있는 사회로의 희망, 여성이 만드는 녹색성장시대” 개최(4월20일) 4)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지구환경과 녹색 성장에 대한 학술적 전망”으로 8월 27일에 학술대회 개최 5)한국영유아교육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녹색성장시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영유아교육방안”(11월 20일)개최함. 이외에도 녹색 성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관련 분야에서 자연주의 교육, 생태교육, 숲유치원 등을 주제로 올 한 해동안 많은 학술세미나가 열림.

제의식을 갖게 하여, “앞으로 녹색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전개를 풀어나간다. 차이점이 있다면 “앞으로 녹색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대목에서 풀어나갈 방향이나 해결방법을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맞춰 제시한다는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녹색인재양성을, 건축학 분야는 녹색시설관리,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녹색, 여성학분야에서는 여성과 녹색거버넌스 등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방식이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 누적되었기에 녹색성장에 대한 사람들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연구자는 본고를 통해 녹색인재양성을 위해 보육·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철학(인간관)과 실질적 구현을 위한 보육·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껍데기만 녹색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녹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학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철학이 부재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은 시류에 편승한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사상누각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방식, 기초, 내용과는 다르게 논지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왜 21세기 접어들면서 그리고 왜 최근에 녹색성장이 급부상하며 세계는 녹색경주를 해야만 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시원을 더듬어 살펴보는 작업은, 귀찮고 때로는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보육·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있는 작업이라 믿는다. 연구자가 이러한 영감을 갖게 된 데에는 클라이브 폰팅(2007)의 「녹색세계사」를 읽고 나서이다. 따라서 본고는 폰팅의 「녹색세계사」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겠다. 이 책은 서술의 중심축이 ‘인간사회’가 아니라 ‘지구환경’이기에 녹색성장을 주창하는 오늘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우선, 폰팅이 「녹색세계사」에서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을 180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러한 역사적 전개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²⁾에 직면한다. 이를 기초로 녹색인재가 갖춰야 할 철학(인간관)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녹색성장시대 보육·교육과정의 철학과 실체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또 육아지원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본고를 전개해 나가겠다.

2) 녹색성장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이란 말을 종종 사용하는 데, 폰팅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낱낱이 밝힌 지구생태 파괴에 저지른 ‘인간의 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는 ‘불편한 진실’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2. 풍요 속에 수반되는 생태파괴와 오염³⁾

클라이브 폰팅에 따르면, “인류가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200만년 동안 최근 2, 3000년을 빼고 인간은 수렵 채취에 기대어 왔다”고 하면서 “인류 역사의 99%는 수렵 채취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그것은 사람이 채택한 생활양식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유동성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가장 피해를 덜 주는 방법이기도 했다”라고 하였다(Ponting, 2007: 38). 그러다가 지금부터 1만 2000여년 전 사람이 식량이 얻는 방법이 몇몇 지역에서 변화가 생겨나면서 평등했던 사회는 계급이 뚜렷하고 부의 편중이 심한 사회로 대체되었는데 이 모든 변화는 농경의 발달과 잉여식량이 이용된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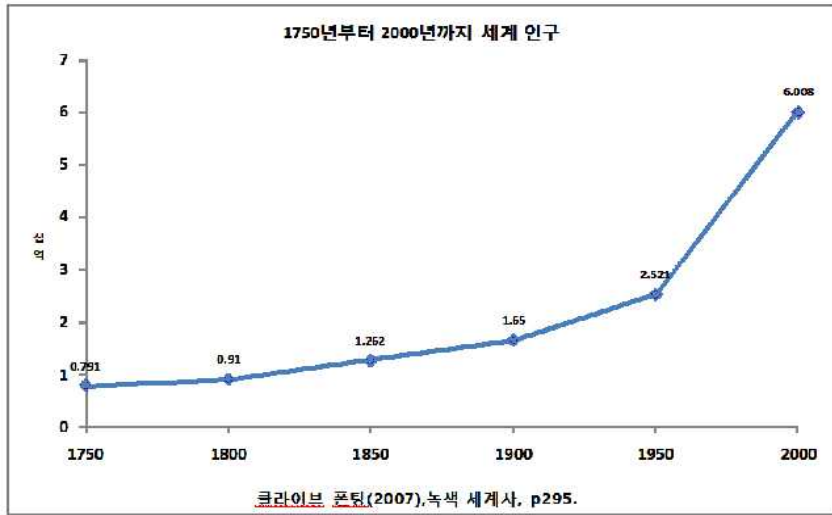
이처럼 폰팅은 인류의 지구파괴의 역사를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현재 인간 삶의 방식을 가져온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이후로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가. 급격한 인구증가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난 250년동안 인구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이다.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는 세계 인구가 10억명 느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될 것이다. 세계인구가 처음으로 10억명 넘어선 때에는 1825년경이었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 다음 10억명은 단 100년 만에 늘었다. 1925년~60년 35년 만에 새롭게 10억명, 그 다음 10억명은 겨우 15년만에 늘었다(클라이브 폰팅, 2007:294). 10억명씩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2000년 되기 직전 세계인구는 60억명이 되었다. 지금 세계인구는 약 65억명이다. 20세기 전반부터 출산율 감소로 인구성장율이 서서히 줄어들었으나, 동시에 20세기 중반이후 사망률이 급격히 줄었기에 인구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200여 전보다 7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처럼 세계인구가 전례없이 늘자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일단,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사는 게 시급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클라이브 폰팅, 2007:298).

3) 폰팅은 선진국 대부분의 주민들은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하게 먹고 있지만, 세계 인구 대부분이 영양부족으로 생긴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등 녹색세계사에서 ‘빈곤’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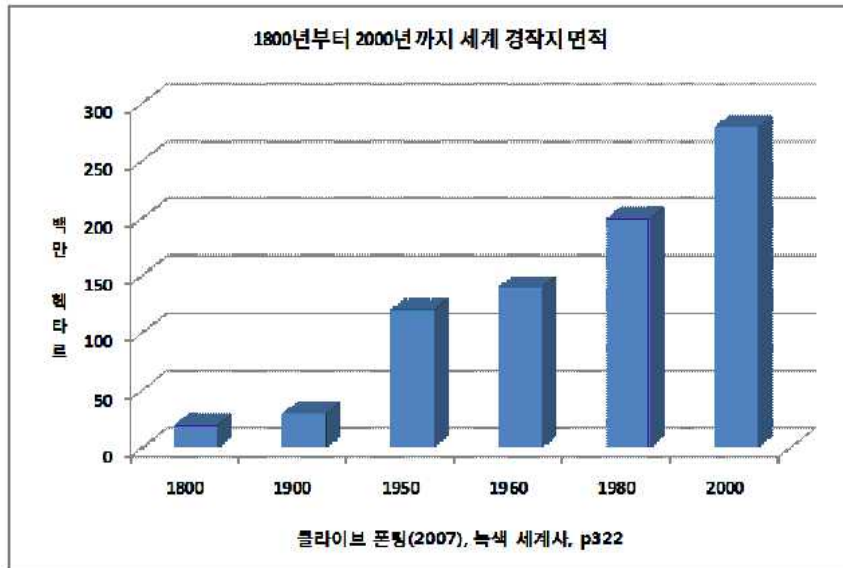
[그림 1] 18세기이후 세계인구의 급증

나. 삼림파괴

지난 200년동안 인구가 7배 늘어나면서 식량증대를 위해 새로운 농경지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연 산림의 개간은 새로운 농경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농경을 하기 전에는 지구 지표의 45%가 삼림으로 덮여있었는데, 지난 1만 년동안 이 가운데 1/3이 파괴되었다. 20세기 초가 되면 숲은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산간지역에만 남았고 20세기 말에는 땅의 5%만이 숲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선진국에서는 숲의 면적이 증가하는데 이는 목재를 얻기 위함이지 농경지 확보가 목적은 아니었다. 선진국에서 숲의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개도국에서 가구용 목재와 종이용 펄프를 수입했기 때문이다.

1950년 뒤 열대우림은 갑자기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부자 나라들의 목재 수요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열대우림 국가 안에서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 농지를 더 넓혀야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세계 열대우림의 40%가 있는 아마존 지역에 집중되었다.4) 아마존 숲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21세기 초에 적어도 원래 있던 숲의 20%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21세기 중반이면 모두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의 삼림 파괴를 지원하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고 지주의 정치권한이 막강한 브라질에서 열대우림을 개간해서 땅 없는 노동자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다른 이유는 브라질의 거대한 내륙지역에 사람을 살게하여 먼 국경을 수비하는 방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클라이브 폰팅, 2007: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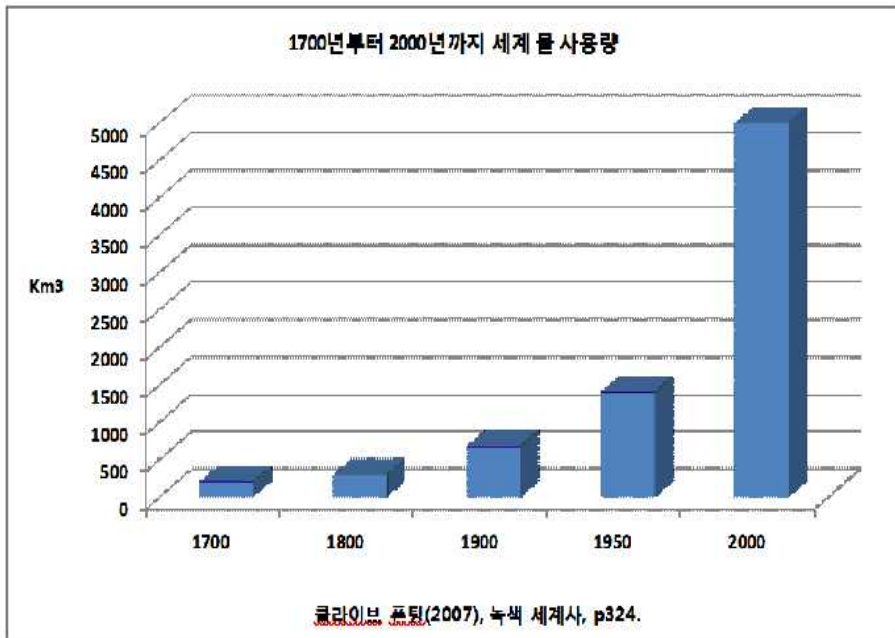
[그림 2] 19세기이후 세계 경작지 면적 급증

열대우림 개간은 지역의 전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이 숲들은 지구의 모든 동식물 종의 절반 가량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종이 사라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 해 5만종 정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종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다. 열대우림 파괴는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생이 사라지면 태양에너지가 나무에 흡수되는 부분이 없이 맨 땅에 반사되므로 기온이 올라가고 땅을 마르게 해 대기 먼지가 많아져 비구름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클라이브 폰팅, 2007: 316).

다. 물 부족

지난 200년 동안 식량생산의 급증은 관개시설 증가로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1800년에는 약 800만 헥타르의 땅을 관개했으나, 19세기 동안 이 면적이 5배로 늘어 4000만 헥타르, 20세기에는 다시 7배가 늘어 2억7500만 헥타르가 된다. 전체적으로 34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관개 농지의 확대는 세계의 물자원에 심각한 짐이 되었다. 지구상에 있는 담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세계 물의 9%는 바다의 소금물이며, 담수의 2/3는 주로 남극에서 얼음으로 존재한다. 나머지 담수는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지하 대수층에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동안 쓰는 물의 양은 1700년에 약 110Km³던 것이 오늘날에는 5200Km³로 무려

47배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관개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물이 버려진다는 점이다. 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21세기 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0세기 동안 세계 물 사용은 거의 10배 늘었고, 대부분은 20세기 후반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무임승차'로, 지하 대수층에 물이 차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을 써버렸던 것이다(클라이브 폰팅, 2007: 323-324).



[그림 3] 18세기이후 세계 물 사용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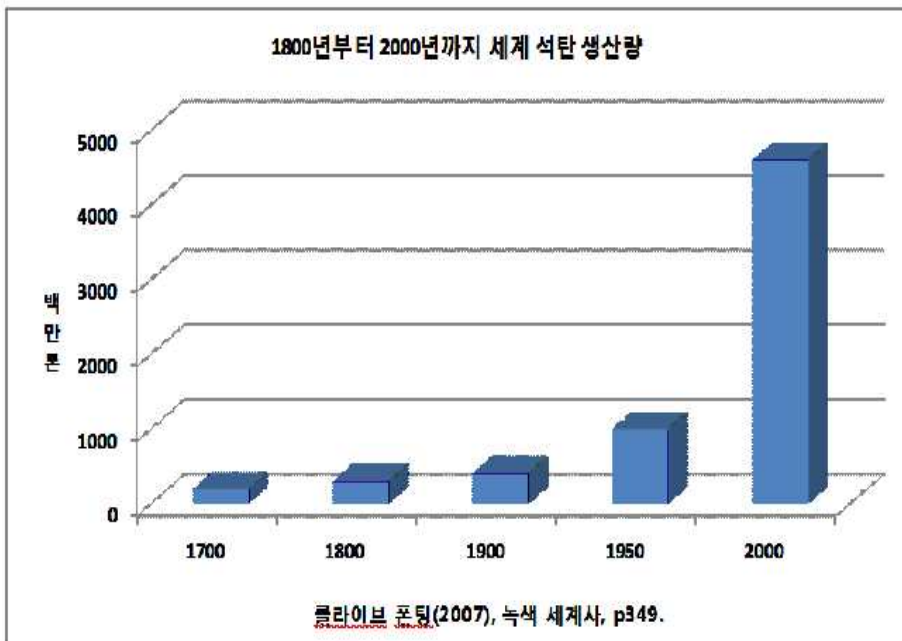
1980년경부터 관개하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전망해 보더라도 남아있는 물은 2010년~2020년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보이며, 가뭄이라도 들면 더욱 빨리 바닥날 것이다(클라이브 폰팅, 2007: 325).

라. 화석연료 사용량 급증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의 무게는 화석연료 등 에너지 문제를 통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만년 동안 인간의 에너지 소비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방법도 사람과 동물의 힘을 쓰는 것에서 물레방아,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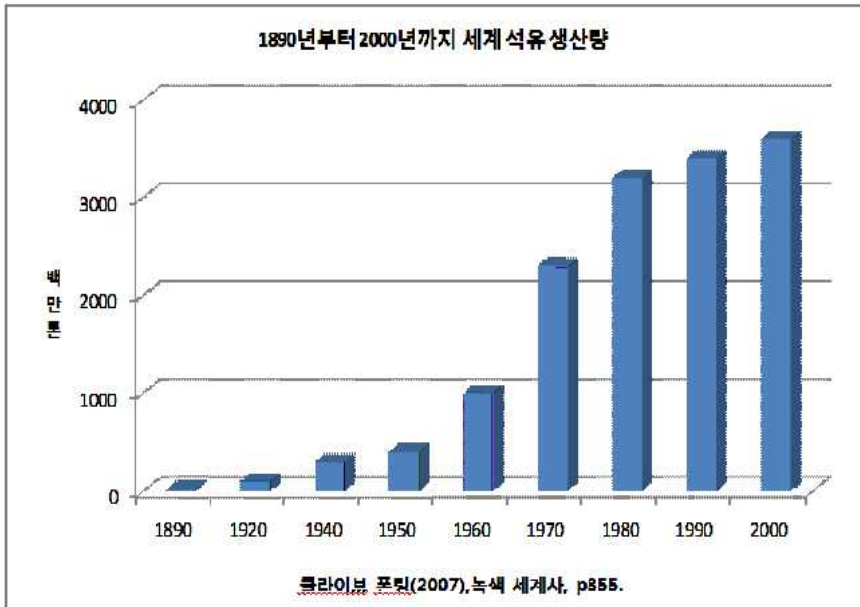
석탄, 석유, 전기 발전을 거쳐 점점 복잡해졌다. 19세기 이전까지 모든 사회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사람, 동물, 물, 바람, 나무—를 써왔다.

19세기이전 주된 연료는 장작이었다. 장작은 구하기도 쉽고 말면 잘 타고, 대부분 공짜였다. 문제는 수요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나무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될 수 있었지만 장작이 무제한 공급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나무를 새로 심는 일에 대한 관심을 거의 없었다. 수세기를 거치면서 목재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목재(장작)는 비싸고 귀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체에너지원으로 17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석탄을 쓰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대체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목재에서 석탄으로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것은 단순히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불연속선을 만들었다. 그때까지 인류역사의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 부족이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사용량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문제로 바뀐 것이다.



[그림 4] 19세기이후 석탄 생산량 급증

19세기 들어서면서 석탄 생산량이 빠르게 늘었다.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1800~1900년 사이에 3배 늘었고, 이는 거의 대부분 석탄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800년 세계 석탄 생산량은 1000만 톤이었으나 1850년에는 7600만 톤이 되었고, 1900년에는 76배 늘어난 7억 6000만톤, 19세기 마지막 2년동안 전 세계 사용량은 18세기 통틀어 쓴 것보다 많았다(클라이브 폰팅, 2007: 348-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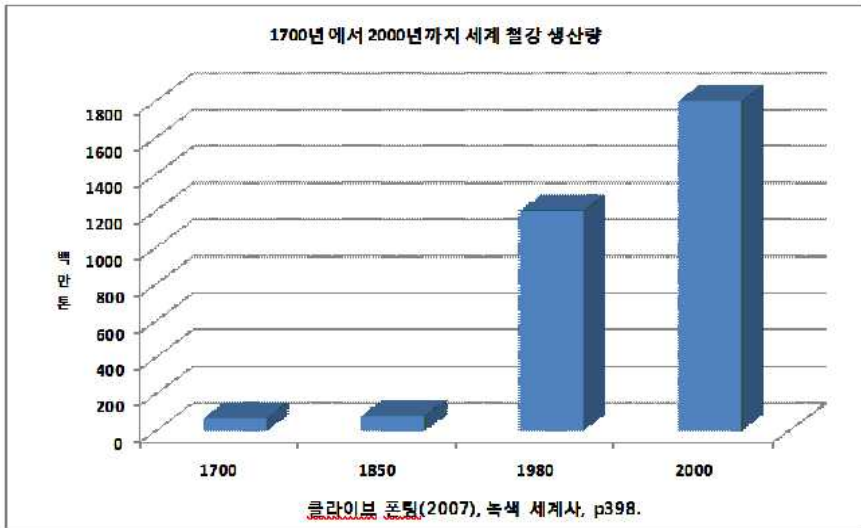
[그림 5] 19세기이후 석유 생산량 급증

마. 기타 광물과 금속 사용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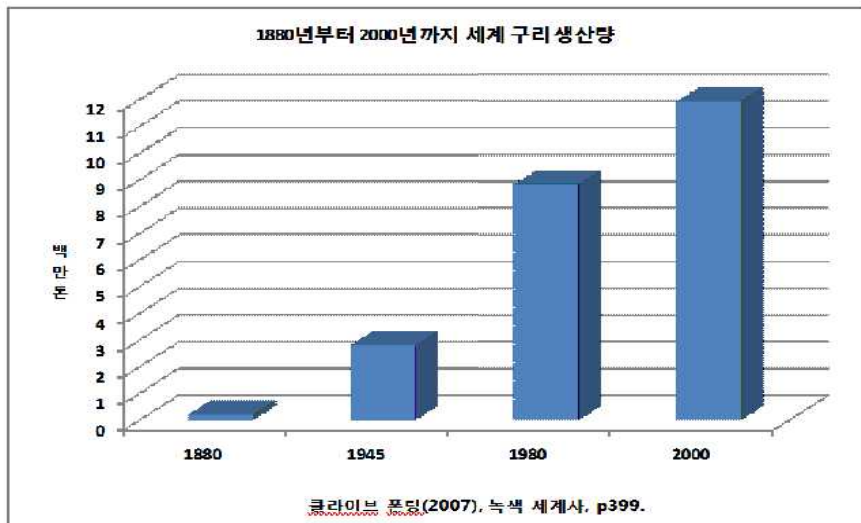
지난 2세기 동안 있었던 엄청난 에너지 소비 증가와 더불어 광물과 금속 생산도 엄청나게 늘었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쓰인 금속은 납, 그 다음은 구리, 그리고 철이다. 철은 무기와 농사도구에 널리 쓰였다. 하지만 생산량은 수천년 동안 얼마 늘지 않았다. 1400년 유럽이나 중국의 철 생산량은 3만 톤 가량으로 세계 전체 철 생산량은 한 해에 10만 톤도 못 되었을 것이다. 1400년에서 1700년 사이 유럽의 철 생산량은 6배가 늘어나서 30만 톤에 이르렀다. 1788년에서 1830년 사이, 철 생산량은 6만 8000톤에서 70만톤으로 10배나 늘어났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산해 낸 양의 2배이다. 19세기 중반 전 세계 생산량은 1700년보다 40배 늘어난 1200만 톤이었다.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 다음 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철과 강철 생산량은 한 해 20억 톤에 이른다. 대강만 비교해도 1400년의 세계 생산량과 비교하면 2만 배가 늘어난 것이다.

다른 금속 생산도 엄청나게 늘었다. 인류 역사상 캐넌 금 가운데 3/4이 20세기에 채굴한 것이다. 구리 생산량은 한 해 1160만 톤이나 되었는데 1880년 보다 100배 늘어난 양이다. 알루미늄, 니켈 등 기타 금속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그림 6] 19세기 이후 철강 생산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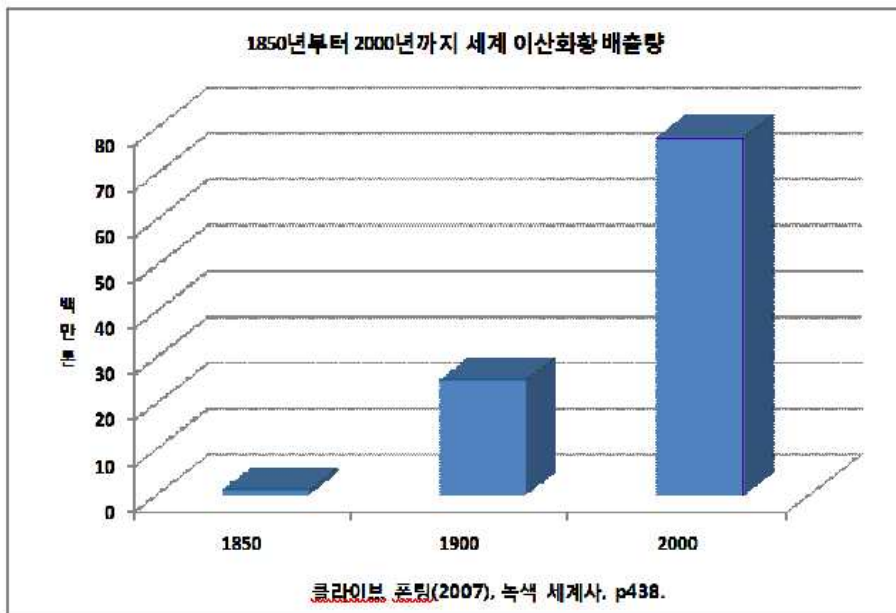


[그림 7] 19세기 이후 구리 생산량 급증

이 정도 규모로 금속을 생산하려면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세계 광산의 70%는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노천 채굴방식이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기는 하지만, 거대한 구덩이를 파내거나 산봉우리를 통째로 들어내야 하므로 표층토를 손상시키고 엄청난 폐기물을 남긴다. 이 폐기물을 거대한 산으로 쌓여 보기에 안 좋을 뿐 아니라 강에 침적토를 쌓이게 하고 강물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킨다.

바. 산성비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갈탄을 태우거나 황화철 광석을 제련할 때 이산화황이 많이 나온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질소가 산화되어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들이 생긴다. 이 모든 산화물들은 대기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황산이나 질산 종류로 변한다. 이러한 산들이 비와 눈 따위로 내리면 자연적인 비보다 훨씬 산성이 강해진다.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쓰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200년 동안 산성비가 크게 늘었다. 전 지구적인 이산화황 배출량은 1850년 무렵 100만톤 정도였을 것이나 20세기 말 7500만톤으로 늘어났다. 질산화물 배출도 1900년한해 200만톤에서 100년 뒤 약 2700만 톤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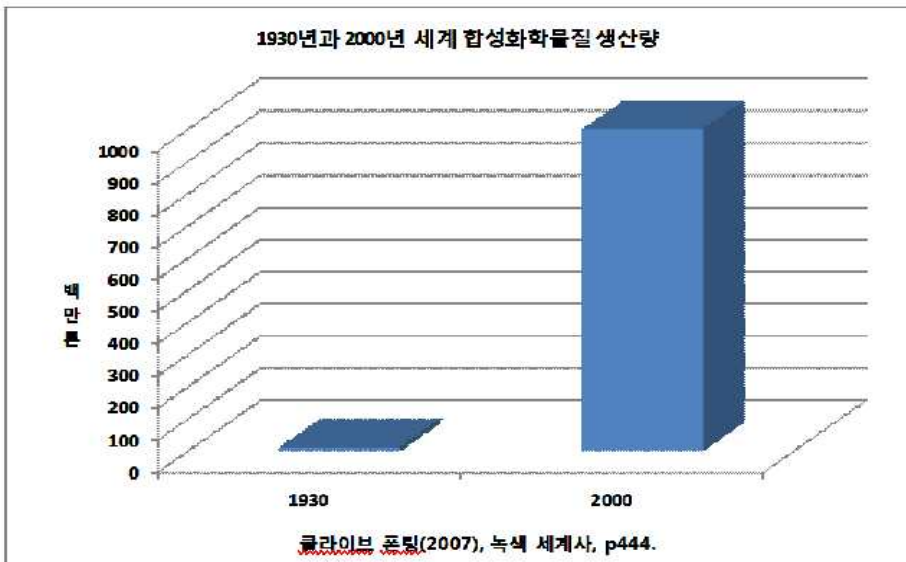


[그림 8] 19세기이후 이산화황 배출량 급증

산성비는 하천과 강, 호수를 천천히 산성으로 만들어 생태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pH 6.0이 위험수위로, 이보다 낮아지면 동물의 생명도 위협받기 시작한다. 복잡한 과정이 관련되어 있지만, pH가 낮아짐에 따라 중금속 농도가 커지게 심각하다. 물고기의 아가미에 알루미늄 수산화물의 형태로 알루미늄이 녹아 들어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소 흡입량이 줄어들어 체내 염도가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pH가 5.5까지 내려가면 연어가 살 수 없고 연체동물도 사라진다. pH가 5.0보다 더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살 수 없고 pH 4.5가 되면 식물군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평소의 산성비에도 시내와 연못이 사는 야생 생명체들이 타격을 입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비나 봄에 눈이 녹아 생기는 갑작스러운 산성화 현상 때문에 받는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사. 산업공해

20세기 후반에는 산업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오염 수준이 느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20세기 후반 가장 큰 변화는 여러 가지 합성화학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적은 양만 누출되어도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며 자연 조건에서 분해되기 어려워 어딘가에 쌓이게 된다. 1950년 뒤로 7만 5000가지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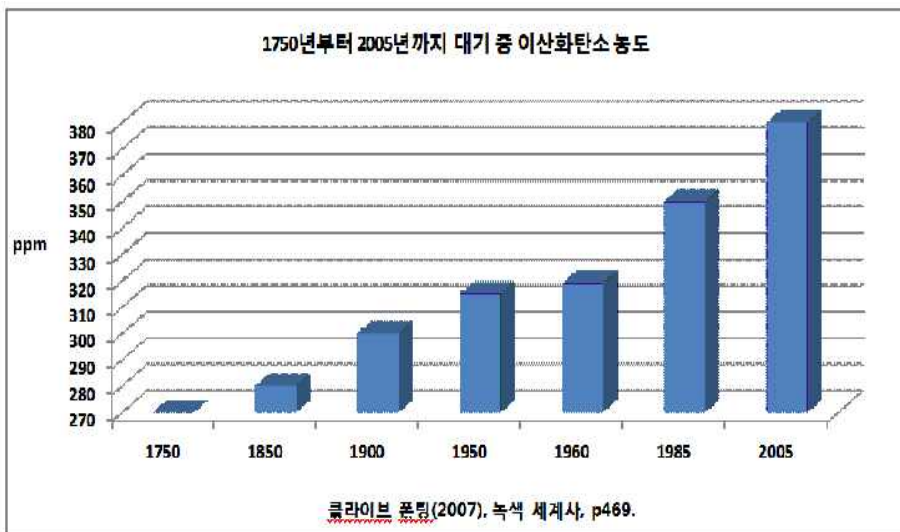
[그림 9] 20세기이후 합성화학물질 생산량 급증

해마다 2000종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동물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 세계의 합성화학물질 생산은 1930년에 100만톤이었던 것이 20세기 후반에는 10억 톤으로 늘었다.

현대 공업생산품은 점점 오염성이 강한 물질로 옮겨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누에서 합성세제로 바꿈으로서 인산 생산이 20배나 증가했으며 에너지도 훨씬 많이 쓴다. 공장은 세척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값이 싸기 때문에 합성세제를 좋아한다. 합성세제를 많이 쓰면서 시냇물, 강물, 호수, 바다의 인산 오염이 크게 늘었는데 질소와 인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박테리아와 녹조류가 빠르게 번식하고 그 시체가 용존산소량을 떨어뜨려, 호수나 수로에 생명체가 많이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클라이브 폰팅, 2007: 443-444).

아. 이산화탄소의 대량 배출: 온실효과에서 온난화로의 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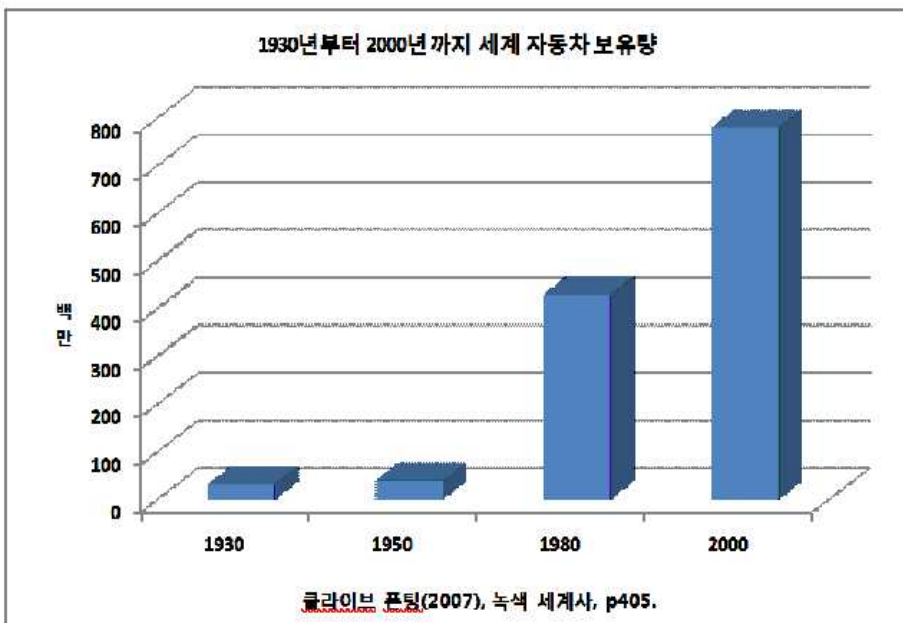
지난 250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증은 현대사회가 화석연료를 쓰고 높은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는 사회로 변화된 것을 뜻한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석탄 생산량은 1800년의 350배이며 석유생산량은 1900년의 350배이다. 세계 자동차 수는 1900년 거의 0이었으나 2000년에 7억7500만대로 늘었다. 반면 지난 200년동안 숲, 그 중에서도 열대우림은 전에 없는 규모로 파괴되었다.



[그림 10] 18세기이후 CO₂ 배출량 증가

1750년 이래 30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사람들 활동으로 생겼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1975년 뒤 생긴 것이다. 그 결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클라이브 폰팅, 2007: 469).

지구는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있어 지구의 평균기온을 섭씨 15도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난 200년 동안 사람들의 활동으로 이러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질산화물이 늘었으며, 프레온가스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실가스도 생겼다. 이러한 변화로 지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온실효과는 가장 위협적이고 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문제, 즉 지구온난화로 변질했다(클라이브 폰팅, 2007: 468).



[그림 11] 20세기 자동차 보유량 증가

폰팅(2007)은 “지구온난화는 세계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지난 1만년 동안 발달해 온 방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어떤 이유 때문이며, 특히 1800년 뒤 세계의 일부분에서 높은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면서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 20세기는 지난 1000년을 통틀어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 1990년대는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았다.
- 1998년은 지난 1000여 동안 가장 더웠던 해였다.
-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개 가운데 19개는 1980년 뒤였다.
- 역사상 가장 더웠던 4개 해는 1998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다.
- 2006년 미국 우주항공국(NASA)은 지구 기온이 지난 30년 동안 10년마다 0.2 도씩 올랐다고 보도했다.

자료: 클라이브 폰팅(2007), 녹색세계사

오늘날 환경문제는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난 200여 동안의 환경문제는 급격한 속도로 더욱 확대되고 그 결과도 극적으로 증폭되어 왔다. 폰팅은 인류 역사에서 두 번의 거대 변화가 있었는데 한 번은 수렵·채취(인류역사의 99%차지)에서 농경과 정착사회로의 전환이었으며 그 뒤로부터 1만년 뒤 나타난 두 번째 대변화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쓰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지워지는 고도의 소비사회가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 대변화는 인간 사회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역사에서 유례없는 규모로 세계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변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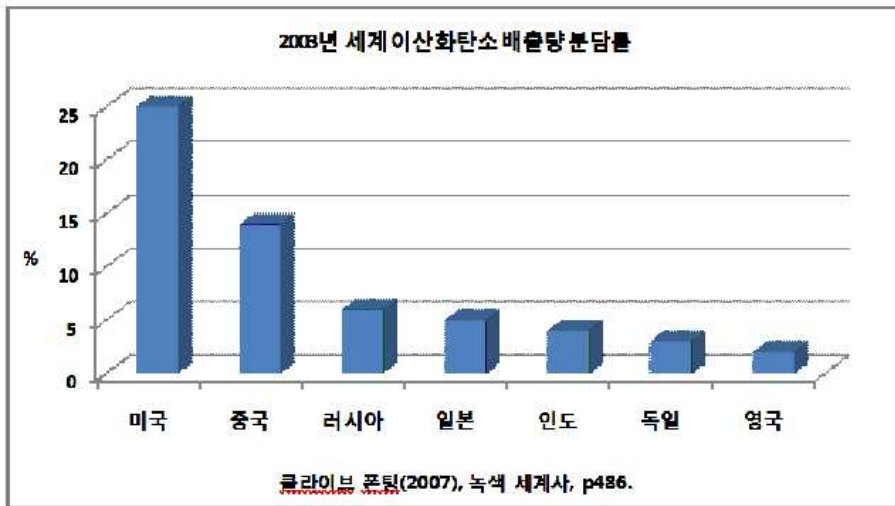
20세기 세계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	
인구	3.8배
도시인구	12.8배
산업생산량	35배
에너지 사용	12.5배
석유생산	300배
물 사용	9배
관개 지역	6.8배
비료 사용	342배
어획량	65배
유기화학물질 생산량	1,000배
차를 가진 사람	7,750배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	30%

자료: 클라이브 폰팅(2007), 녹색세계사

3. 풍요의 수혜자, 오염의 피해자

가. 불평등한 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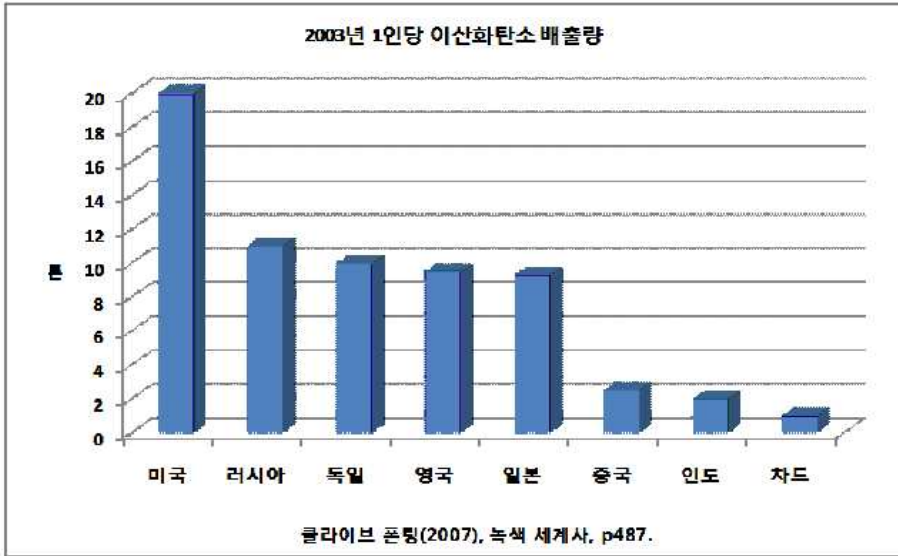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대전환을 이룬 지난 200여의 역사를 이룬 국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로 전환과 높은 에너지 소비사회의 발달은 세계 불평등을 만들어 냈다. 19세기에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유럽과 북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유한한 화석연료를 이렇게 까지 쓴 책임은 다름 아닌 이들 국가들에 있다. 20세기 전반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전 세계 화석연료 사용량의 90% 이상을 썼다. 21세기 초 세계 인구의 1/5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쓰는 에너지의 양은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겨우 10%를 쓸 뿐이다.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가난한 하위 25%, 15억명 가량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단 2.5%만을 쓴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100년 전 미국 사람들보다 4배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것은 유럽 평균보다 2배, 인도 평균보다 30배, 방글라데시보다 100배나 많은 수치다(클라이브 폰팅, 2007: 361).



[그림 12] 세계 각국 CO₂ 배출량 분담률(2003년)

미국은 세계인구의 5%정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중국은 14%, 러시아 6%, 일본은 5% 조금 못되는 양을 내보낸다.

미국사람 1명이 평균 한해 20톤이 조금 안 되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는 중국보다 7배, 인도의 20배가 넘는 양이다. 미국인 한 사람은 세계인구의 1인당 배출량의 약 6배를 내보내는 것이다.



[그림 13] 세계 각국 1인당 CO₂ 배출량(2003년)

이처럼 지구 환경문제 이면에는 국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산업사회가 부유해진 배경에는 엄청난 에너지 사용이 있었고 이를 위해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왔다. 오늘날 세계의 기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이산화탄소 수준을 줄이기 위한 비용도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게—단지 산업화가 늦어서—선진국들이 먼저 환경을 망쳐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와 부의 증대로 인한 혜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동의 석유수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화석연료 생산에 기대고 있으며 호주도 화석연료의 하나인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다. 세계가 화석연료를 계속 쓰도록 하는 데에는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한 강력한 힘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 암울한 미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우울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더 암울하다. 앞에 논의를 통해 막연하게나마 “그렇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 내지는 중단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던 그 먼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덜 쓴다는 것은 단순히 양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차를 갖고 있거나 이용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환경문제는 선진국과 약소국(개발도상국)간의 ‘아주 불편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혀있는 복잡미묘한 문제라는 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20세기 지난 몇 십년 동안에는 개발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생각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 실제로 행동하는 시민운동이 조직되었고 국내외 정치계에서 환경문제가 논의되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는데 예컨대 도시의 매연과 산업에서 나오는 오염 줄이기, 산성비와 프레스가스 생산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경제성장, 기술진부, 대량소비 등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고 걸치레적이며,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게 폰팅의 주장이다.

4. 인간만능주의 등장

인간에 대한 대조적인 두 생각이 있다. 다음 두 개의 인용글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례 1. **“인간의 완벽함은 무한하다. 이 완벽성은 점점 진보해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맡긴 지구가 영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진보는 지구가 우주에서 지금 위치에 있는 한 역전되지 않을 것이다.”**(클라이브 폰팅, 2007: 165 재인용)

*사례 2. **“짐승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모든 짐승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어갈 겁니다. 짐승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에게도 일**

러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쳤던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땅은 그들의 어머니라고 땅의 운명은 땅의 자손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는 것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입니다. 지구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가닥의 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미줄에게 가하는 일은 자신에게 가하는 일입니다.”(클라이브 폰팅, 2007: 168).

사례 1의 인간관은 화석연료 사용과 대량소비사회로 점철되는 현대사회가 싹트기 시작한 서구의 17~18세기 동안 역사는 쇠퇴가 아니라 ‘진보’한다는 새로운 생각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다. 고대사회에는 진보란 개념이 없었다. 역사는 대개 특정한 방향이 없다고 여겼고, 있다 해도 황금기에서 쇠퇴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예컨대 체로키 인디언이나 장자 같은 중국의 도교사상가들은 황금시대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15~16세기 사상가들도 그들의 시대는 문화뿐 아니라 시민들의 미덕이나 용기도 그리스 로마시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지적인 틀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꾸준히 진보해 나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유럽의 지식인 사상가들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지식인이 이러한 낙관론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서유럽에서 인구가 증대하고 도시가 성장했으며, 새로운 발명이 줄을 이었고 공업이 발달하는 등 물질적인 발전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찰스다윈의 「종의 기원」, 허버스 스펜서의 적자생존론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변질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스펜서는 인간도 살아남기 위해 자연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까지 오를 ‘적자(適者)’라 보았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서구적 사고는 지난 2000년 넘게 두고 발달해 온 방식(사례 2)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클라이브 폰팅, 2007: 164-168).

인간사회는 계속해서 ‘발전’ ‘진화’한다는 생각은 자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당성을 기초로 18세기 이후,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엄청났다. 너무도 짧은 시간동안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공해, 산업재해, 독성쓰레기, 교통오염, 핵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버렸다.

5. 녹색인재양성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정립: 인간만능주의 성찰 에서부터

“녹색성장시대의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하는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논하기 위해 좀 많이 우회해서 돌아온 것 같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 저탄소 녹색성장은 너무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영커있어서 육아정책과는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이 인류사의 “제3의 대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녹색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녹색인재는 기성세대의 가치관, 소비방식, 생활방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앞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인간이 진보, 발전, 성장이란 가치를 여전히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한, 녹색인재는 무늬만 녹색일 뿐이다. 또한 녹색인재는 말이나 이론수업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야만 ‘진정한’ 녹색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녹색인재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하겠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열어가는 시대에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은 녹색인재 육성을 추구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 기성세대의 반성

오늘날 지구환경파괴는 산업사회를 주도해 나간 일부 선진국가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게—단지 산업화가 늦어서—선진국들이 먼저 환경을 망쳐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와 부의 증대로 인한 혜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억울한 일이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사회의 세대 간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성세대가 누린 부와 소비의 혜택을 후대에게는 환경을 위해서 그 혜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은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버리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말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며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

시설과 유치원의 교사들은 녹색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구두(口頭)로’ 가르치기 것 보다, 아껴쓰고 재활용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나. 궁극적으로 녹색인재양성 지향

녹색성장이 탄소저감기술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대체에너지 기술과 같은 녹색기술에 기반한 경제성장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환경과 공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대안적인 발전모델이라고 볼 때, 녹색성장사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 인적자원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한 UN의 Agenda 21에서도 시민의식, 훈련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 가치, 행동, 삶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권대봉, 2009).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녹색성장이 녹색혁명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녹색성장의 철학을 내면화하고 녹색소비와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개인능력 함양 중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음은 어느 육아지원기관의 교육목표이다.

- * 아동의 발달적 잠재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다.
- * 아동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 아동의 구체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
- *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유능감, 자발성, 창의성을 강조한다.

다분히 아동의 개별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목표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믿었던 생각이 인간만능주의로 점철되어 이것이 자연을 정복하는 결과를 낳았던 사례들을 보면, 영유아기에 아동 개인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녹색성장시대와는 철학적으로 모순일 수 있다. 앞선 대조적인 인간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철학을 지향하고, 체화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자연교육이나 환경교육을 실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육아지원기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개인중심적인 철학을 기조로 하고 있다면, 단순히 자연교육의 시수를 늘리는 것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6. 육아정책 차원에서의 보육·교육과정 실제

가. 영유아 일상에서 녹색생활 체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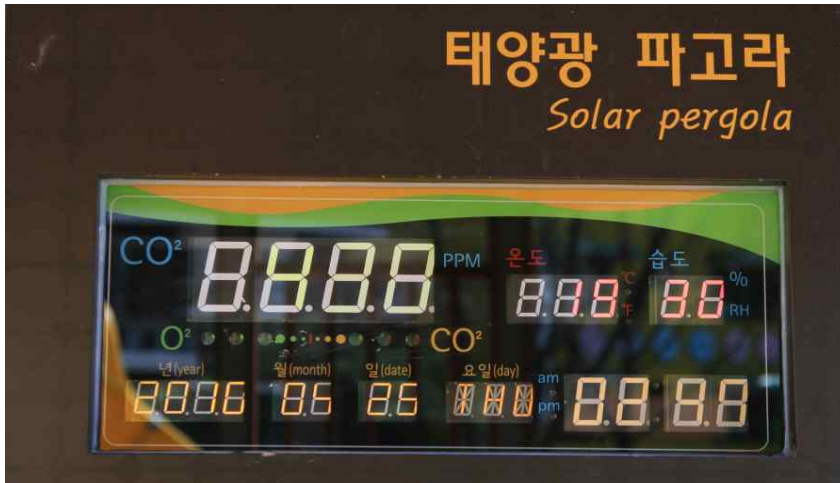
녹색인재는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녹색인재양성을 녹색나무에 비유해 보면, 뿌리에 해당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튼튼한 뿌리에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2년 동안 300개소 ‘상상어린이공원’을 개소하겠다는 목표 하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⁵⁾ 2010년 현재 200개 ‘상상어린이공원’이 개소되었다. 그런데 2010년 개소한 몇몇 ‘상상어린이공원’에는 게임형 자가발전 놀이대, 태양열 그늘막,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여 낮 동안 모아졌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해가 진 뒤에도 은은한 불빛이 들어와 여름철 인근 어린이들의 놀이 및 주민들의 야간 휴식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⁶⁾ 또 공원내에 태양열 그늘막 내부 표시계를 설치하여 낮동안의 태양열에 의해 연월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태양열을 이용한 야간조명 활용,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 있는 태양열 그늘막 표시계(태양광 파고라), 게임형 자가발전 자전거 놀이대(Speed Racer) 등 에너지 관련시설이 놀이기구와 접목하여 설계됨에 따라 아이들은 재미있게 뛰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

5) ‘상상어린이공원’ 추진 목적은 단조롭고 노후화되어 그동안 외면 받아오던 기존 어린이공원(놀이터)를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테마놀이 공간,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쉼터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2년 간이며 25개 자치구의 노후 어린이공원 300개소(’09년 150개소, ’10년 150개소)를 대상으로 총 147,185백만원(시비 100,066/ 구비 47,119)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6)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보도자료(2010. 5. 4), 5월 상상어린이공원 50개소 개원!

일상생활 속에서 교과방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비형식적인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교육이야말로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림 14] 은평구 박석 상상어린이공원: 낮 동안의 태양열에 의해 연월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이 나타나는 태양열 그늘막 내부 표시계



[그림 15] 은평구 박석 상상어린이공원: 태양열 집열판과 LED 등이 있어 밤에도 은은한 불빛이 비추는 벌집형 정글짐 조합놀이대



[그림 16] 관악구 새싹 상상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상부 태양열집열판을 통해 LED 등 조명, 경사형 회전놀이대, 유아용모래놀이대, 유아용 조합놀이대 설치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의 한 방안으로 “탄소제로(CO₂ Zero) 놀이터 조성”제시한 바 있다. 자연친화적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놀이와 배움을 접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후변화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도구, 자전거 발전기 등을 통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기획단, 2008), 상상어린이공원과 개념이 유사하다.

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건축물 녹색화

요즘 아이들이 가정 못지않게 오랜 시간 지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야말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하겠다. 이미 상급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낙후된 학교교육의 환경개선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차원에서 녹색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 대상을 영유아들이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확대되어야 하며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목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녹색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국의 민간단체인 Green School Initiative가 운영하고 있는 ‘Green School’ 인증제를 제안한다. ‘Green School’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고(toxic free),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방안을 활용하고(use resources sustainably), 녹색운동장을 만들며(green schoolyard), 환경과 관련한 책무성을 가르치는(teach stewardship) 4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7)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녹색어린이집, 녹색유치원을 짓고자 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녹색화를 촉진하여야 하겠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6항을 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녹색건축물이 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에게 환경 교육을 경험케 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녹색화”야 말로, 앞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인식해야 하겠다.

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녹색생활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선진국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녹색생활을 활성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지표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그 예시들이다. 가령, 다음 <표 2>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구디매하거나, 상품을 포장하는 것을 줄이고, 가능한 재활용하고 재료들을 재사용하는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며, <표 3>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비누가 로션 등이 영유아들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지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표이다.

<표 2>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친환경 물품사용 체크리스트

1	우리는 최소한으로 포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용 물품을 구입한다.	Baseline(기초선) 7 6 5 4 3 2 1 Date: _____
2	우리는 작은 용기에 리필할 수 있는 대용량의 일반적 사용 물품을 구입한다.	
3	우리는 프로그램 내에서 재사용되는 내구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한다.	Improved(개선정도) 7 6 5 4 3 2 1 Date: _____
4	우리는 노트에 기록하거나,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기 위해 이미 한 면에 프린트가 된 종이를 사용한다.	
5	우리는 신문을 재사용한다.	
6	우리는 판지를 재사용한다.	
7	우리는 합성제지를 재사용한다.	

7) 권대봉 편저(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

8	우리는 유리병을 재사용한다.	
9	우리는 캔과 깨끗한 알루미늄호일을 재사용한다.	
10	우리는 플라스틱을 재사용한다.	
11	우리는 재사용하기 전에 깨진 것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버리기도 한다.	
12	우리는 안전한 물품, 매우 잘 사용된 기증품을 받거나 구입한다.	

자료: Phil Boise(2010), Go Green Rating Scale for Early Childhood Settings

〈표 3〉 비누·로션 등 화학물질 사용자제 체크리스트

1	A) 아이들이 사용하는 비누, 로션, 물수건, 치약, 연고는 향균성있는 화학물질을 포함되지 않는다.	Baseline(기초선) 7 6 5 4 3 2 1
2	B) 우리는 손씻기 정책을 세우고, 개인적인 위생 실행한다.	Date: _____ Improved(개선정도) 7 6 5 4 3 2 1
	· A와 B기준을 충족함.....= 7 · A기준을 충족함.....= 5 · B기준을 충족함.....= 3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1	Date: _____

자료: Phil Boise(2010), Go Green Rating Scale for Early Childhood Settings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녹색 생활에 관심을 유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점차 기관평가(인증)에 녹색생활 관련 지표항목을 넣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녹색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7. 결론을 대신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기

녹색성장, 녹색인재, 녹색시민 등의 담론이 형성되는 가면서 아쉬운 것은 그 대상으로 영유아에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에서도 영유아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8월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방향“에서도 녹색인재육성 추진방향으로 “제도권(K-12) 녹색성장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제도권(K-12)란 초·중·고를 의미한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를 위한 교사연수도 초·중학교 교사(300대상)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영유아 교사는 제외된다. 녹색성장 관련 교육도 초·중등 교과서와 교재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외, 2009).

일부 지자체 수준에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녹색교육' 사업을 시범유치원을 선정, 실시하고는 있으나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책입안자는 영유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를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간주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녹색성장교육 기반구축 추진(안)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8. 13),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방향 논의: 추진방향으로, 녹색성장 교육 강화 및 세계화 제시
- 권대봉 편저(2009), 녹색성장, 녹색직업, 녹색인재, 박영사.
- 김상협(2009),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방향.
- 녹색성장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행정안전부(2009).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기획단(2008),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2010). 녹색성장시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영유아교육방안,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 Boise, P(2010), Go Green Rating Scale for Early Childhood Settings: Handbook, Redleaf Press.
- Ponting, C(2007), 이진아·김정민 옮김(2010). 녹색세계사, 그물코.



종합토론

이명환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중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장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에 대한 토론

이명환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요즘의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 세계와 의미있는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대이다. 오늘날 아이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아이들이 집주변에서 혼자 다녀도 되는 면적은 1970년대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 5년 사이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사례는 두 배로 늘어났고,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와 사고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들은 딱정벌레나 떡갈나무는 모르지만, 만화의 등장인물은 잘 알아본다. 리처드 루브는 아이들이 자연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비만, 주의력 결핍장애, 우울증 등의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자연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자연결핍 장애’라고 명명하고 있다. ‘자연결핍 장애’는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규정하는 리처드 루브의 고유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Louv, 2005).

최근 산업화와 함께 몰려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있다. 생활의 편리성을 위한 생활태도는 결국 우리가 처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다시금 자연에서의 교육, 자연과 접촉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본래의 자연을 물려주는 것도 기성세대의 역할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이미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가 되었다.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교육계에도 ‘녹색교육’이라는 용어와 녹색인재 등의 용어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영유아교육에 있어서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에 대하여 고찰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사려된다. 특히, 자연친화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유아교육 현장이 증가되고 있는 요즘의 시점에서 다시금 철학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교육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초를 다지기에 더 의미있는 일

이라고 생각하며, 이윤진 박사의 원고를 기쁜 마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윤진 박사의 원고는 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의 철학과 그 실재를 해야 하는 그 배경적인 지식, 즉 자연파괴와 환경, 인간만능주의 특히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그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부분에서는 원 꾸미기, 자원 재활용 등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에 있어 녹색교육의 필요성 및 원인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충분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토론자는 이윤진 박사의 원고에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로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을 위한 철학적 배경을 짚어보고, 인천대학교 숲유치원의 실례를 소개함으로써,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단편적 이나마 녹색교육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의 철학

우리의 아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배워나간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현재 움직임은 자연스러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이의 본성과 기질을 이해하고 아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모습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요즘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아이들은 컴퓨터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TV나 방송매체에 의해 시각과 청각만이 발달되어지고, 조기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이미 유아기부터 마음껏 놀지도 못한 채 유아교육기관을 다녀온 후 오후엔 여기 저기 학원을 시간에 얽매어 다녀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수동적인 존재로써,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성인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의 본성을 살려 주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아마도 아이의 존재의 의미를 재정립해 본다면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아이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아이들의 존재란 움직이는 존재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자연 속에서 가능해진다.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코메니우스는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합자연의 원리, 혹은 자연의 질서에 따른 객관적 자연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안내자로 삼고 따라간다면 결코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루소는 [에밀]에서 자연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할 아동중심교육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정봉구 역, 1987).

『자연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그대로 어린이로 있어 주길 바란다.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를 전도(顛倒)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설익고 맛도 없으며 금방 썩어버리는 속성(速成) 과일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즉, 나이 어린 박사와 늙은 아이를 갖는 셈이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나름대로 보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어른들이 사물을 보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법을 어린이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일은 없을 것이다.』

페스탈로찌는 [은자의 황혼]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자연 자체로 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김정환 역, 1998).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와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 시간에 아이들은 당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의해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귀임이나 나뭇잎 위의 곤충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당신은 조용히 있도록 하라』

이와 같이 교육의 역사 속에서 유아교육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강조되어 왔으며,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은 자연과의 만남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토론자는 독일, 스위스, 한국의 숲유치원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몰입하여 관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아들은 매일 매일의 자연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주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며, 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온 몸과 정신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

또한 자연에서 유아들의 놀이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아닌 무엇인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본인만의 장난감을 상황에 따라서 창의적으

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자연의 흙, 도토리, 솔방울, 나뭇가지, 돌멩이, 이끼 등의 모든 사물이 유아들의 장난감의 소재가 된다. 책을 통해 아이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양과 색깔, 이름뿐이지만, 자연에서는 그 감촉도 느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교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보다 아이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공감해 주고, 아이가 발견한 것에 같이 호기심을 갖고, 아이가 만들고 한 일에 대해서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올바르게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부여한다. 아이는 성인들과는 다른 학습방법으로 배운다. 우선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상 사물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맡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직접 온 몸으로 체험해 보아야 하는데, 이는 호기심, 자발적 행위, 실험에 관한 흥미가 아이의 내면세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Seitz, 1996).

둘째,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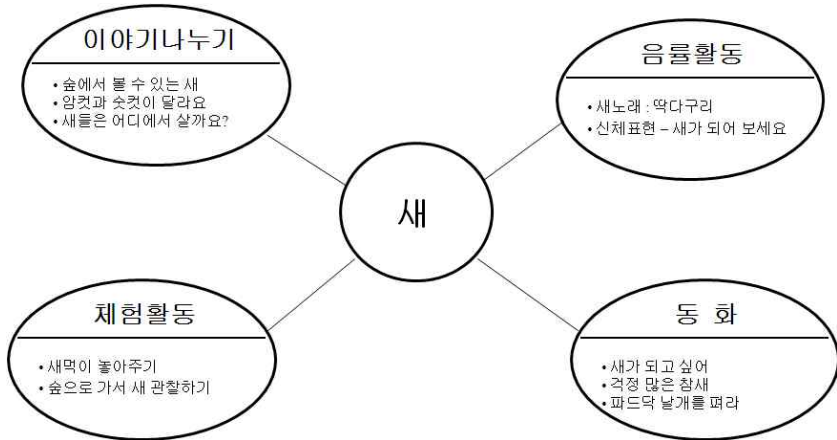
유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는 것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숲을 소개하는 숲해설가의 도움으로 숲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도 있으며, 숲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체험을 통해 자연을 알아가게 하고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 숲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언어발달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연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면 교사에게도 유아에게도 그리 즐거운 숲과의 만남이 아닐 수 있다. 자연을 실내로 들여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내보다 바깥에 있을 때 그 자연은 더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쉽게 숲으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소재는 나무, 흙, 풀, 물, 곤충, 새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숲에서 진행된 '새'에 관한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숲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들은 매일 바뀌지 않는다.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에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체험해볼 수 있고,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을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었기에 더욱 더 교육내용은 확장되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숲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으로 그 내용을 교육하였다. 특히 금년 2월 2주에 '새'라는 주제로 2주 동안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아이들은 새에 대하여 3월까지도 관찰하고 사진으로 표현하고 새 도감을 가지고 와서 멧비둘기가 보이면 그 특성을 읽고, 나무에 있는 새둥지를 보면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 유아도 있었다.

새에 관한 교사와의 활동내용 예시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새에 관한 활동내용

겨울이 되어 나뭇잎 들이 거의 다 낙엽이 되어 나뭇가지만이 보이자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새 둥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새 둥지로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 둥지마다 모양이 다른 새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새소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새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새의 한 무리에서도 모습이 다른 새가 있다는 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아이들과 새를 주제로 이야기나누기,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체험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새 소리가 나는 숲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유아는 집에서 새모이를 가지고 와서 숲에 놓아주기도 하였고, 실제로 모이를 준 곳에 새가 날아와서 먹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새 먹이를 놓아줘요>

<조용히 지켜봐요>

<와! 새가 날아 왔어요>

끝으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와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윤진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 김정환 역(1998). 은자의 황혼. 서울: 서문당.
- 정봉구 역(1987). 에밀. 서울: 범우사.
- Comenius, J. A. (1991). Pampaedia. Neu-Übersetzung von K. Schaller. Sankt August: Academia Verlag.
- Louv, R. (2005). Last child the Woods. 자연에서 떨어진 아이들. 김주희 역 (2007). 서울: 즐거운 상상.
- Seitz, M., & Hallwachs, U. (1996). Montessori oder Waldorf, Kösel, München, 96-98.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위한 녹색 보육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하나. 토론을 맡고서

이윤진박사님의 주제발표 토론은 저에게 폰팅의 녹색세계사를 읽게 된 계기가 되어 참으로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따라 추운 겨울에 밭에 가서 보리를 밟아주었던 경험, 식목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 뜨거운 여름 날 눈에 들어가 피를 뽑다가 종아리에 달라붙는 거머리를 보며 영영 울었던 기억, 여름방학 숙제로 퇴비를 만들 풀을 한 다발씩 베어서 학교 운동장에 쌓아 올렸던 기억……. 이러한 이야기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들려주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옛날 원시시대에 태어났어요?” 폰팅의 녹색세계사가 아니더라도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빠른 변화였습니다. 한두시간씩은 걸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저는 5분 10분 거리도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몸으로 했던 일들을 오늘날은 기계가 대신하고 화학약품과 비료가 대신 해주니 영유아보육 현장에서는 자연체험 경험을 보육과정에 넣고 싶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모의 호응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보육현장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거론되는 담론은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텃밭가꾸기, 숲체험, 먹거리, 아토피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미래의 인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떠한 가치와 삶의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및 우리의 미래를 보육과정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왜 녹색성장을 보육활동에 포함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하나의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둘. 목공활동을 진행하며

저는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썰매를 만들어주고 연을 함께 날리던 기억, 재봉틀 앞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으로 완성되어가던 인형을 가슴 두근거리며 지켜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백화점 가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자녀의 맘에 드는 장난감을 '딱 한 개만' 고르라고 주문할 필요도 없이, 인터넷 앞에서 한 번에 다량 구매하여 시간과 돈을 가장 적게 투자하고도 멋지고 팬시한 장난감들을 아이들 방에 가득가득 쌓아 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에 몰입하여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하면, 능동적인 참여자보다는 수동적인 관람 놀이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N 놀이문화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자신이 만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면,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녀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제가 근무하는 전북대학교 임산공학과(목재응용학과) 대학원생 석사 논문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은 저에게 영유아보육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활동을 열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학생은 목공활동을 어린 아이들에게 시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논문주제를 선택했는데 아동을 잘 모른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저는 아동학자로서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실에 나무를 들여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충분했고, 아이들은 단순히 나무를 만지고 냄새맡으며, 몇 번의 톱질로 나무를 자르고 몇 번의 망치질로 나무를 연결하는 목공기초활동만으로도 성취감을 맛보았으며, 점차 살아있는 나무에 관심이 옮겨져 나무와 숲, 그리고 인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림청의 지원으로 아이들과 목공 체험활동을 진행해 오면서 오늘 일본에서 오신 야마시타교수님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으며 '나무와 숲 그리고 인간'을 영유아보육의 일상에 연계해야 할 중요성을 크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내면 가뭄과 홍수를 막을 길이 없어 큰 일 나는 줄 알고 자랐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탄소를 고정시키는 탄소 저장고이며, 콘크리트는 100년이 되어도 썩지 않지만 나무는 30년이면 재생산 된다는 점을 이미 학교에서 배웠

지만 이 지식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목공 활동을 하면서 나무와 숲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나무를 활용하고 목재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베면 안된다'에서, '나무는 베어서 우리 생활에 적극 활용하고, 나무를 베고 나면 심고 잘 가꾼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목조건물을 다시 보게 되었고 승례문의 화재사건과 부산의 고층아파트 화재 사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도 길러졌다고 자부합니다.

주위의 보육시설을 보면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에 디즈니 그림이 그려 있고, 실외놀이터에는 빨강 파랑 노랑 플라스틱으로 단장한 실외놀이기구 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험정신이 돋보여야 할 대학의 영유아보육·교육 교재교구전시회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상업화된 교구를 모방하여 스티로폼과 부직포로 제작 전시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지구환경의 문제는 우리의 머리에 담겨있는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 있을 뿐 우리의 생활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셋. 녹색인재양성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정립

발표자는 “녹색성장시대의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하는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제기하면서 기성세대의 가치관, 소비방식, 생활방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녹색인재 양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보, 발전, 성장이란 가치를 여전히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한, 녹색인재는 무늬만 녹색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녹색인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녹색 보육·교육과정 철학**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녹색인재상(?),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 정립은 몇십 분의 발표 주제에 담기는 너무 무거운 과제이며 몇몇 연구자의 제안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발전, 성장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합의해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폰팅이 언급하듯이 톱니바퀴는 돌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가치관, 소비방식, 생활방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녹색인재 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치관, 소비방식, 생활방식이 이대로 존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나」보다는 「우리」, 「먼저」보다는 「함께」, 「경쟁」보다는 「배려」를 생각해 봅니다.

넷. 육아정책 차원에서의 보육·교육과정 실제

발표자는 영유아 일상에서 녹색생활 체화하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녹색화, 영유아를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기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러나 녹색 보육과정의 실제가 부의 편중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방인으로서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영유아 일상에서 녹색생활 체화하기로 예를 든다면, 에너지관련 놀이 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등 기후변화에 대해 배울 수 없는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영유아사업을 육아정책 차원에서의 보육·교육과정 실제로 제안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연구자가 언급했듯이 인간이 진보, 발전, 성장이란 가치를 여전히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한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 가치, 행동, 삶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처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영유아보육과정의 실제, 예를 들면 강남구와 농산어촌의 보육시설의 교류-프로그램 교류, 교사 교류, 체험 교류-를 통해 농산어촌의 어린이들은 서울의 상상공원을 즐길 수 있고, 도시의 어린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Green School' 인증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Green School'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방안을 활용하고, 녹색운동장을 만들며, 환경과 관련한 책무성을 가르치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영유아가 하루종일 생활하는 공간을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크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콘크리트 공간에서 자란 쥐와 나무 공간에서 자란 쥐의 성장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하였으며, 학교 교실을 목재로 구성하면서 학생들의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토피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영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한 책무성 교육은 없이 이루어지는 유기농 먹거리와 편백나무 교실은 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Green School

과는 거리가 먼 계층 간의 위화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유기농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식품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유아보육 현실에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녹색어린이집, 녹색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제안은 빈익빈부익부의 염려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산어촌의 보육시설의 경우는 녹색어린이집으로의 리모델링이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보육을 위해서

우리는 보육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들이 고려되기를 희망합니다.

- 녹색성장, 녹색인재, 녹색시민, 녹색보육에 대한 정의
- 표준보육과정에서 녹색성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문제
- 녹색성과 관련된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보육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문제
- 영유아의 보육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
- 하루 일과 중에 녹색성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
- 보육 종사자의 녹색성장 관련 인식 전환과 실천의지 강화를 위한 지원 문제
- 녹색성장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 영유아 먹거리의 문제
-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녹색 조성
- 교재교구전시회에서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녹색성장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가라앉는 섬 투발루, 지구촌 모두의 위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국토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나라가 많다. 그 중에서 지구상에서 맨 처음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나라가 있다. 바로 투발루이다.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약 1만 700명, 육지 면적 25.6km²인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섬나라이다. 투발루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2001년에 국토 포기를 선언하였고, 이웃 나라들에게 이민을 받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반응들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사실상 투발루 국민들은 인류 최초로 환경난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투발루의 알라마팅가 루사마(46) 목사는 "해로운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건 역사상 어떤 대량학살보다도 악질적입니다. 각국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프레온가스가 기후를 변화시켜 사람과 동식물은 물론 국가와 문화, 역사를 죽이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을 '대량학살보다 악질적인 행위'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투발루는 현재 해수면 상승, 싸이클론, 가뭄 등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을 한꺼번에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나라이다. 투발루를 보면 기후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게 위협을 주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투발루는 최근 몇 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을 겪고 있다. 맑고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건기에 폭우가 오고, 우기에 가뭄이 발생하는 등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 졌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 해안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도 산호초가 하얗게 변화하는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산호초는 폭풍과 해일로부터 섬을 보호하고, 해양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때문에 산호초의 백화현상의 폭풍의 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투발루인에게는 큰 재앙이다.

이것이 어찌 투발루 사람들만의 고민이겠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날씨도 이미 예측하기 힘들어졌고, 폭우와 가뭄에 시달리고, 해수면도 침식되고, 산호초도 죽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지난 100년간 누적 배출량 세계 22위의 국가이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도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투발루 같은 나라를 구하기에 너무 늦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의 오경석 국장은 《충청투데이(2009. 10. 7)》에 투고한 글에서 "기억하라. 오늘 투발루가 물에 잠기면 내일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투발루인입니다."는 알라마뎡가 목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비가시적인 지구 온난화, 천천히 더워지는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호소하는 투발루인 목사의 호소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호소하는 우리 아이들의 '무언의 절규' 같은 느낌이다.

2. '아이 건강'이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시대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선언하였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개념으로서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양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산업화시대의 발전전략을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제 효율성(Eco-efficiency) 중심의

성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성(경제 · 사회 · 환경의 균형과 통합)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개념이며,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녹색성장은 환경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3대 요소는 첫째,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하고, 둘째,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셋째,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환경부, 2009).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방향 중에는 "녹색성장은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이다"는 지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확대, 에너지·물사용 절약, 식습관 개선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포함한 의식주 생활습관 개선에 노력하고자 하며, "녹색성장은 교육문화정책이다"는 지침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녹색교육을 통하여 미래 녹색시민 양성을 제안하고 있다(환경부, 2009).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녹색성장에 대한 한신대 이상헌 교수의 지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지향적인 해결책들을 우선순위로 불분명한 채로 한꺼번에, 그것도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쏟아냈으며,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계획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 또한 이러한 녹색성장시대의 구상 속에는 아이들 건강과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을 비롯한 생태적 관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시대의 이념은 사람과 자연의 공생과 상생을 지향하는 생태론적 세계관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인간의 욕구인 경제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연생태계 위기와 인간 생존 위기의 근원적 주범인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넘어서지 못하는 녹색성장시대의 이념과 대책은 지구촌 위기 극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개발독재·압축성장 지향의 황색개발시대를 뛰어넘는 진일보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기존의 황색개발 방식의 개발이 지속되다가는 지구생태계는 물론 우리나라 생태계도 과국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이 지탱해줄 수 있는 방식의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녹색성장시대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무늬는 녹색이지만 내용은 성장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사회는 녹색성장시대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상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녹색상생시대로서 생태사회(eco-society) 내지 어메니티사회(amenity society)를 말한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사상인 홍익인간의 이념에 바탕을 둔 이화세계의 개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에 관한 아주 특별한 국제회의

2009년 9월 21일(월) '생명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주 특별한 국제회의가 있었다.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및 '아이들 건강 악화'를 인류의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열린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국제컨퍼런스(Children's Health & Sustainable Planet -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이다. 이 컨퍼런스는 아이건강제주연대를 비롯한 49개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매우 이례적인 국제회의로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의장이면서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젠드라 파차우리 박사와 '채식과 환경보호로 지구를 구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전지구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청하이 무상사를 비롯한 10여명의 국내외 학자와 운동가들이 발표자로 참가하였으며, 수프림마스터텔레비전을 통해 14개 위성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60개 이상의 언어와 40개 이상의 자막을 통해 시청하였다.

기후 변화의 현재 진행 상황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에서 제시한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 이미 그 피해와 치명적인 영향들이 허리케인과 홍수, 가뭄, 열파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북극 빙하의 해빙, 대륙 함몰, 빙하 해빙으로 인한 물 부족, 그리고 폭풍의 증가까지 이 모든 현상은 지구의 기온 상승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지구를 차갑게 식혀야만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열을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방출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생태계 위기상황에서 파차우리 의장은 기후변화와 아이들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특히 예민한 관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과 지구생태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미래가 보장받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 또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결과로 많은 질병이 창궐하고 더 많은 홍수나 가뭄, 더위가 닥칠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될 것이 특기없습니다. …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변화의 최악의 결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자연의 자원이 남아있는 행성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자연이 선사해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보존되어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도 남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호소이며, 나의 호소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부터우러난 뭔가를 하길 희망합니다.”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국제컨퍼런스 자료집 p. 7).

이 컨퍼런스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05년 선언」이라는 뜻 깊은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행사는 친환경농업, 건강, 교육, 학부모, 생명평화, 식품안전, 전통의료, 학교급식, 체육, 금연·약물, 환경 등의 관련단체들의 대표와 사회원로 2,005인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치닫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선언을 한 바 있다. 그것을 계승하여 2007년 3월 30일 3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향후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지속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에서는 식생활교육기본법,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법, 게임중독방지법, 보건교육진흥법 등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공포에 기여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이용중 선생이 아이건강제주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는 그 같은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4. 병든 아이 · 병든 지구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프다. 생명위기를 가져온 산업문명의 결과이다. 고도 산업화·첨단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양계닭’처럼 방이나 교실 내에 갇혀서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양계닭’처럼 길러진 아이들이 장차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

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지역 P어린이집 아이와 어머니 각각 1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재택·이호영, 2004)에서 밝혀진 아이들의 신체질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어린 아이 10명 중 8명 정도(81.9%)가 일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고, 어린 아이들의 일정수가 노인성 질환인 폐렴(6.8%)과 천식(15.2%)을 앓고 있었으며, 치아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도 35.5%나 되었다. 이는 요즘 아이들이 설탕, 탄산음료, 과자류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의 씹지 않는 잘못된 식습관, 오염된 먹거리 실태를 생각해볼 때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토피는 43.1%나 되는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알레르기 역시 26.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아비만과 소아당뇨는 각각 5.5%, 1.8%이고, 빈혈 4.3%, 변비와 장염·설사도 각각 27%와 17.1%로 나타났다.

한편 위 연구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살펴본 결과, 부산하게 움직이는 과잉행동증상을 보인 아이들은 64.5%, 불안 증상 21%, 신경질 증상 24%, 짜증을 내는 증상 50.6%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들의 정서불안, 스트레스, 과잉행동, 성격장애 등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날로 악화되는 양육환경

취학전 아이들의 건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과 관련하여 생명지속적 사회 존속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2005년 1.06명)은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 못지 않게 심각한 징후는 불임률 급증이다. 지난 10년 사이 2.5배 증가하여 100만 쌍을 넘어서고 있으며, 양수의 오염은 물론 정자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정자의 운동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유산, 사산, 조산 등으로 인해 건강하게 태어나는 신생아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을 뿐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도 기형아, 미숙아의 탄생 비율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크게 늘어가고 있다. 요행히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새로운 질환에 고통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아암, 소

아당뇨 등 과거에는 없었던 무서운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아이들의 건강 이상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당수 아이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과잉행동장애(ADHD)라는 환경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은 IMF사태 이후 지난 10년간 그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는 신체적·정신적 이상 증세로 고통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빈곤계층의 자녀들은 질병과 장애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 건강의 악화요인

전쟁이나 기근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아이들만큼 지난 10년간 건강이 악화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맞물려 아이들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동의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며 동의를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된 주요인은 만성적인 운동부족,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의 범람, 오염된 먹을거리, 경쟁중심의 천박한 양육문화와 교육풍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첨단 정보사회의 인터넷 강국 아이들답게 가상공간에서 게임과 놀이를 즐기고 있다. 게임중독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정신적 황폐화로 인한 우울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비만 등을 동반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모든 동물은 새끼 때는 어미 때보다 10-15배 정도 더 많이 움직여야만 어미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의 만성적 운동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몸을 놀리고 있는가? 아이들을 집안과 교실에서 뛰어놀지 못하도록 가두고 앉혀서 조용히 키우고 있다. 아이들은 햇볕과 바람 속에서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놀이를 멀리한 채 억압적으로 양육·교육되고 있다. 만성적 운동부족은 아이들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의 약화로 몸과 호흡과 마음의 병으로 이어진다.

환경오염의 악화, 환경호르몬과 유해화학물질의 범람, 지구 온난화 등도 아이들의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농약과 비료, 상업적으로 밀집 사육하는 축산물,

수산물의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그리고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과 식품포장제 등으로 오염된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반생태적 식생활은 아토피, 소아비만, ADHD, 정자 수 감소와 정자의 운동성 저하, 각종 난치병의 조기범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쟁적인 천박한 양육문화와 교육풍토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적인 조기 영재교육과 영어교육, 만연된 과외친구, 입시위주 교육풍토 등은 아이살림의 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들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죽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식생활 전통에 주목하고 있으며, 전통 의술의 잠재력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먹을거리 문화와 전통 의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의 건강은 이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 시대를 이끌어온 어른들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만 생각했지, 그 과정에서 생명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이 보여주는 것만 쫓아서 달려 오느라,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 올 수 있게 한 우리 조상들의 탁월한 생활의 지혜들을 다 내던져 버린 결과이다.

5. 아이살림을 외면한 유아교육의 현실

산업사회의 산물, 현대 유아교육

현대 유아교육은 산업사회의 부산물로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어린 아이들을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호 · 교육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을 집단적인 유아교육시설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 교육하는 방안을 학문적 ·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유아교육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결국 유아교육의 진보와 발전은 소위 과학적 접근이나 학문적 연구라는 미명아래 어린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가두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유아교육은 시설중심 유아교육이고, 공장식 유아교육이고, 집단적 유아교육이고, 인위적 유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라고 주장한 엘렌

케이는 아동교육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근거는 '아동심리학'이라고 주장한다. 아동의 세기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집단은 미국의 아이들이며, 그들의 행동이나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른 나라 아이들의 연구나 이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편 20세기 과학기술, 특히 의학과 약학의 진보는 어린 아이들을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존재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존재로 바꾸어놓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삶을 풍부하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학기술의 위력은 어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아이의 임신과 출산은 병원의 의사가 담당하고, 수유는 분유회사가 담당하고, 양육과 교육은 아동심리학자와 유아교육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널리 심어주었다.

유아교육의 과학화, 조기교육 신화 창조

현대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의 서구화, 과학화, 세계화, 정보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 변화를 지향하는 구조기능론적 접근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문명은 공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교육은 그러한 경제발전에 유용한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고속승진을 하는 것이 미덕으로 작용하는 집단 조급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터무니없이 일찍 학원에 보내 조기 선행학습을 시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결국 현대 유아교육은 어린 아이들을 보다 일찍, 보다 많이, 보다 빨리 가르치는 것으로 자리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불량품'을 양산하는 불량산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내 아이 만큼은 똑똑한 아이로 키워 국내·외 어디에 내 놓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아이의 삶과 행복보다는 미래의 삶과 행복을 보장해줄 능력을 배양한다는 부모들의 욕심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모들은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휩쓸려 어린 아이들의 영어 발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 혀를 수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조기 특기교육, 문자교육을 위해서 수십 만원씩

을 쓰면서도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실은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 유아교육 관계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보다는 교수·학습에 치중하고 있기는 학부모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주류의 유아교육 역시 우리 아이들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감싸 안고 치유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능력 개발을 통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1980년대 초 유아교육 확충사업이 추진되던 시점에 등장한 B. S. Bloom의 지능발달론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이론은 0~4세에 성인 지능의 50%가 발달하고, 5~8세에 30%가 발달한다는 것으로 미국식 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인 8세 이전에 성인 지능의 80%가 발달한다는 엄청난 이론이다. 이 이론을 접한 어린 아이의 부모나 가족들이 유아교육을 과연 외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유아교육 학자들이나 유아시설 원장들은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위협하다시피 아이의 지능이 4세 이전에 50%, 8세 이전에 80% 발달한다는 데, 당신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유아교육을 가열시킨 다른 하나의 허상은 백지설(白紙說)이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상태로 태어나 자라는 동안 어떤 색깔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천재도 될 수 있고, 둔재도 될 수 있다. 이처럼 백지상태의 아이에게 빨간색을 칠하느냐 검정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어떤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종의 위협에 영향 받지 않을 부모가 몇이나 있겠는가?

한편 국가는 정부 고시의 유아교육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적합한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국가는 유아교육을 국가발전과 결부시켜 아이와 어머니를 동시에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측면으로 접근한다. 1994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과목 도입 등에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예 국가정책이념으로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하고, 세계화·개방화·정보화를 통한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심지어 교육부의 명칭마저 교육인

적자원부로 바꾸었다. 산업문명에서 현대 유아교육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어린 이상은 궁극적으로 '부자(富者)'와 '승자(勝者)'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그 저변에는 어린 아이들의 천심(天心)이 아닌 어른들의 끝없는 욕심(慾心)이 자리 잡고 있다.

자본과 경쟁에 찌든 유아교육 현장

1980년대 이후 유아교육시설의 양적 팽창과 교사양성기관의 급증으로 대학의 유아교육과가 늘어나고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식 유아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초 유아교사 양성대학의 교재는 거의 서양, 특히 미국의 유아교육 관련 책자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우리말 대학교재의 대부분은 미국 자료를 기초로 저작 혹은 번역된 것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문적 연구 분위기 형성과 연구인력 증가에 힘입어 세계 각국 유아교육 이론과 프로그램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예컨대, 몬테소리 프로그램, 프뢰벨식 프로그램, 빼아제식 프로그램,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르다 프로그램, 일본의 시찌다 프로그램, 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 프로그램, 독일의 발도르프 프로그램 등 수많은 외국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유아교육은 우리 나라의 사상가나 전통에 의해 우리 아이로 키우기보다는 외국 사상가와 외국의 전통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편 일부 대학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방식의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단원중심 프로그램, 생활중심 프로그램, 활동중심 프로그램, 개방교육 프로그램, 구성주의 프로그램, 발달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부침을 계속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보육시설이 활성화되면서 유아관련 시설들이 급증하고 원아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아교육 프로그램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으며, 세계화로 조기영어교육 열풍까지 가세하여 한국의 유아교육은 자본과 경쟁과 상술이 지배하는 시장의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제 유치원, 보육시설, 사설학원, 선교원 등 시설간의 차별화도 점차 사라져 가는 판국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 유아시설, 학습지 회사, 유아용품 회사 등 사회 전반에서 유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대부분은 아이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아이와 교육과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깝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유아교육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 때 모든 사업에 불황이 없지만 유아사업은 불황이 없다는 말도 있었다. 조기교육 열기와 맞물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들에게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즉 한자교육, 영어교육, 예능교육, 체육교육 등을 '상품'으로 선전하고 있다. 각종 전시회, 솜씨자랑, 재롱잔치 등은 유아교육시설을 알리는데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의 겉모습과 속 모습, 허상과 실상은 날이 갈수록 개선되기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요즘 유아교육에서 교육의 주체인 어린 아이들은 없고, 부모들의 헛된 욕망과 시설간의 경쟁과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도하고, 유아교사의 고달픔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대 유아교육 현실의 단면이다.

6. '녹색'을 선언한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생태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이에 따른 구성 방침의 첫 번째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 즉 생태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린 유아들을 생태적인 한국인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 · 공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교육과정은 21세기 지구 위기, 생명 위기 극복을 위해 유치원 아이들을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상과 실천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키워야한다는 것을 법령으로 공포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우리 민족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홍익인간은 사람과 자연 만물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인간이다.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홍익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 생태론적 세계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녹색성장시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으로 육성한다는 규정은 녹색상생시대의 유아교육인 생태유아교육 내지 생명중심 유아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아이살림 · 생명살림의 참교육을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무늬는 '생태', 내용은 '비생태'인 유아교육 현장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공포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유치원 지도서 12권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 지도서 제1권 총론에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의 실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이래 줄곧 제시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재조명하여, 사람 · 자연 존중 세계관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삶과 배움의 바탕으로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인류의 숙제인 개인, 민족, 인종,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과도 화해하고 공존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개인과 국가와 세계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유치원 교육활동지도서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11개의 생활주제에서 충실히 반영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p.10-11).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선언과는 달리 기존 유아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과운영, 교육활동, 행사운영, 환경구성, 교사역할 등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실행되고 있는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무늬는 '생태'이나 내용은 '비생태 내지 반생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유아중심 유아교육이 아닌 생명중심 유아교육, 개인중심 유아교육이 아닌 공동체중심 유아교육, 지식·인지중심 유아교육이 아닌 몸·마음·영혼을 돌보는 유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 유아주도 유아교육, 생활중심 유아교육, 놀이중심 유아교육, 감각운동중심 유아교육, 우뇌중심 유아교육, 자연체험·바깥놀이 위주의 유아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주도, 수업중심, 억지활동중심, 언어인지중심, 좌뇌중심, 교수학습자료 · 실내놀이 위주의 유아교육으로 끌고가고 있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는 구

호가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의 실태를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첨단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대신 TV나 컴퓨터 화면만을 보고 수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TV, 컴퓨터, 인터넷, 게임, 플라스틱 장난감, 각종 화학용품 등 전자파와 환경호르몬의 폐해가 우려되는 물품들은 유아들의 심신의 건강 보호차원에서 교재·교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런 부류의 유아교사들은 '60분 수업 준비해서 아이들과 5분 수업'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 교사 주도의 인위적인 '수업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주도하는 자연적인 '놀이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아교사는 5분 준비해서 아이들과 60분 놀이하고 생활하는 교육방식이 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아이들에게는 생기와 신명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고, 유아교사의 수업준비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길이다. 교사양성 및 연수기관의 교과과정도 개편해야 한다. 유아교사가 주도해야 하는 교육내용은 가능한 없애고, 그 내용의 양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개발과 경쟁, 부자와 승자 지향의 기존 유아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사랑과 행복,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따뜻한 아이로 키우는 유아교육과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7. 녹색상생시대, 오래된 미래의 유아교육

'녹색성장'을 넘어 '녹색상생'을 지향하는 생태유아교육

21세기 전지구적 생명위기시대에 직면하여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후기 산업문명의 최대 피해자로서 가정의 생활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잃어버린 채 '양계닭'처럼 자라고 있다. 아토피, 비만, 정서장애 등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자연생태계를 살림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적·사회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생명위기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기본방향은 적어도 저출산·불임·자연유산·미숙아 증가 시대에 대처하는 유아교육,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유아교육, 언어·이성·지식·정보·분석 위주의 차가

은 유아교육에서 사랑·인성·감성·영성을 지향하는 따뜻한 유아교육으로의 전환, 놀이·운동·산책·유기농 먹을거리 등을 중요시 하는 삶으로서의 유아교육, 감각·감성·예술·운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뇌중심 유아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식육(食育)과 체육(體育)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아이는 본래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란다. 지금 이러한 유아교육의 기본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식육과 체육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성인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예전의 급성 전염병(1, 2, 3종)이 사라진 대신 만성 생활습관병의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아이들의 잘못된 먹을거리와 신체적 운동 부족과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이들의 식육(食育)은 지육(智育), 덕육(德育) 및 체육(體育)의 기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생명의 먹을거리를 먹이고, 오염된 먹을거리를 안 먹이며, 올바른 식습관지도 등 조상들의 '밥상머리 교육'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이들의 체육(體育)은 디지털사회 유아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자연과 놀이를 멀리한 채 과도한 실내생활과 좌식생활, 자동차 이용 증가, TV·컴퓨터·게임 접속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만성적 운동부족으로 척추측만증, 체력의 약화, 소아비만, 소아당뇨, 소아암, 심장질환 뿐 아니라 근골격계, 정신건강 및 면역계의 이상 등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신체적 운동과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아들이 가능한 자연 속에서 또래들과 함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소리치며 온 몸을 움직이고 오감을 활용하는 신명나는 놀이, 운동, 신체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부모의 생태적 삶, 생태교육의 시작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돌보는 것을 지향한다. 대체로 교육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찌꺼기를 말끔히 없애는 일이 곧 교육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찌꺼기를 말끔히 없애서 깨끗이 하는 일이 바로 몸공부이고, 마음공부이고, 영혼공부 혹은 영성공부이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원래 어른들 즉, 교사나 부모에 비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훨씬 깨끗하다.

따라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이들에 비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어른들이 깨끗한 어린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모순이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깨끗하지 못한 교사나 부모들은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지 말고 아이들의 깨끗함 그대로 유지되도록 잘 모시고 돌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이들처럼 깨끗이 하는 노력, 즉 몸 공부, 마음공부 및 영성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는 격언이 맞는 말이다. 결국 생태유아교육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아이, 행복한 아이, 신명나는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람과 자연, 아이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유아교육

결국 생태유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을 모시고 섬기고 돌보고 살리는 일체의 일이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생활이요, 삶이요, 놀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유아교육을 아이살림의 교육과 생명살림의 교육이라고 하며, 이 둘을 합쳐 아이살림·생명살림의 교육이라고 한다. 생태유아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현대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여러 연령층의 어린아이들을 집단적·전문적으로 모시고 섬기고 돌보고 살리는 ‘아이들의 살림집’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이들과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생태유아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는 자연의 일부이고 생명체의 하나이므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이의 교육은 아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제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는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고 섬기고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위적 교육이 아닌 자연적 교육이어야 한다. 결국 생태유아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은 ‘신명나는 아이’들이 천지간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신명나는 세상’으로서 우리 민족의 이상인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와 상통한다.

아이들은 생명평화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천지자연의 기운을 지닌 고귀한 생명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빛이요, 꿈이요,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또래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면서 개구쟁이처럼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맑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실상은 아토피, 소아비만, 소아암, 게임중독, 정서장애, 성격장애 등 몸과 마음의 심각한 질병을 넘어 아예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불임율과 자연유산율이 급증하고, 미숙아 출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 칭송했던 산업문명의 결과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제 자연의 순리와 조상의 지혜를 무시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계닭'처럼 키우는 기존의 잘못된 물질론적 양육교육체제는 물러나고, 아이들을 '토종닭'처럼 키우는 생명론적 양육교육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부자승자의 삶은 청빈·달관의 삶으로 질적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잉태되어 열달을 살아가는 '아기집'과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학교·사회·자연이 모두 '생명의 살림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생명의 햇볕과 공기와 물과 먹을거리를 먹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교사·주변 어른들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와 믿음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이들과도 함께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를 꾸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학교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사회의 아이들을 행복하게!"라는 구호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믿음직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명지속적인 신명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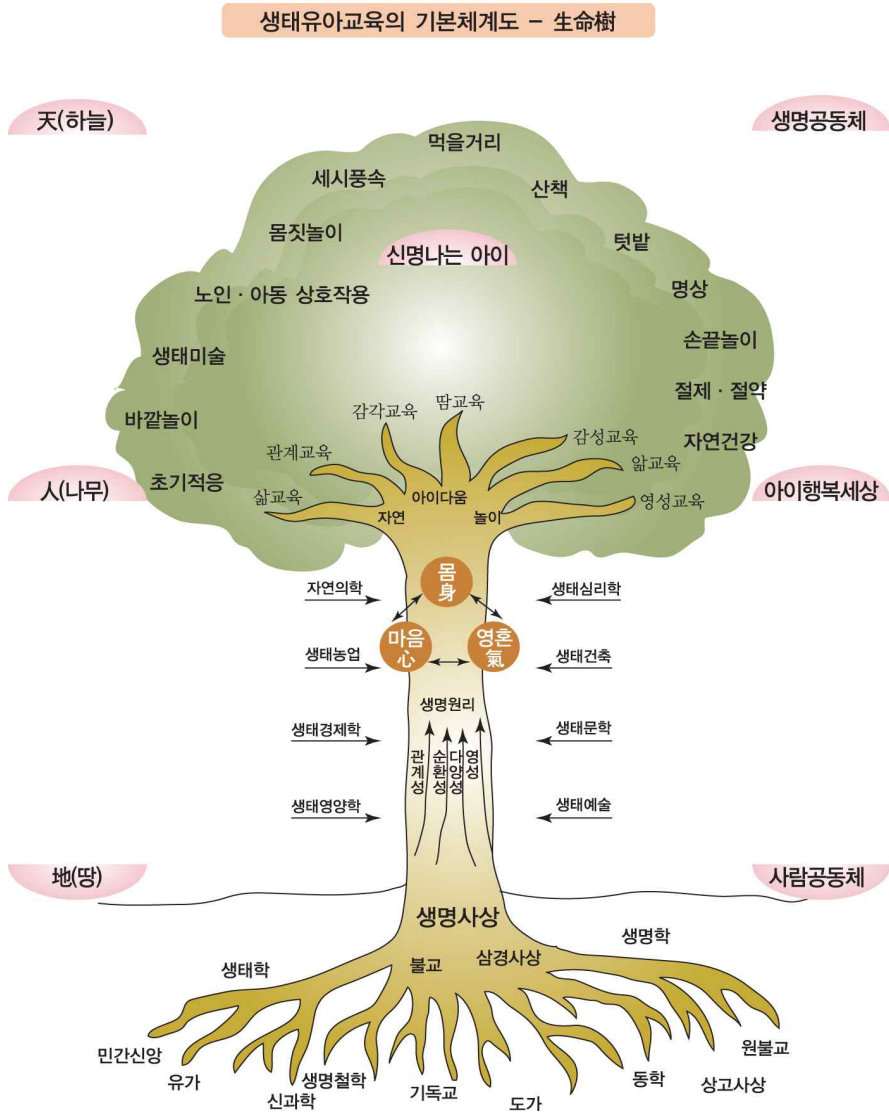
아이건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재택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지도서 1 :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김해창(2009). 김해창의 녹색리포트 :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서울: 이후.
아이건강제주연대(2009).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국제컨퍼런스 자료집.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제3판]. 경기: 양서원.
환경부(2009).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환경부 홈페이지.

* 보충자료

1. 생태유아교육 기본체계도



2. 생태유아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여기서는 생태유아교육과정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이념 및 방향,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를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그 구성요소들의 개략적인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태유아교육과정의 구성 체계

교육이념 및 방향	이념	생명중심 유아교육	공동체중심 유아교육	몸·마음·영혼의 유아교육						
	방향	자연을 되찾아 주는 유아교육	놀이를 되찾아 주는 유아교육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는 유아교육						
교육목적 및 목표	바라는 세상	생명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세상)	사람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이행복세상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신명나는 세상·생명세상 [이화세계(理化世界)]								
	바라는 아이	자연과 하나 되는 아이 자연아(自然兒)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아이 사회아(社會兒)	행복한 아이 행복아(幸福兒)						
		신명나는 아이·생명인(生命人) [홍익인간(弘益人間)]								
	튼튼한 아이	즐거워하는 아이	스스로 하는 아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아이	예의 바른 아이	생명을 존중하는 아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	우리 것을 아끼는 아이	지구를 지키는 아이	더불어 사는 아이
교육내용 및 활동	교육내용	몸교육·마음교육·영혼교육 / 이성교육·감성교육·영성교육								
	교육활동	삶교육 / 담교육 / 관계교육 / 감각교육 / 앎교육 / 감성교육 / 영성교육 노인아동/봄짓놀이/세시풍속/먹을거리/산책/텃밭가꾸기/도·농교류/ 손끝놀이/절제절약/초기적응/바깥놀이/자연건강/명상/감성/영성/ 태교/생태미술/생태문학/생태음악 ……								
교육방법	관계성(接) 교육		순환성(化) 교육		다양성(群) 교육		영성(生) 교육			
	생명원리에 따른 교육 / 기다림과 느낌의 교육 / 자유로운 표현을 격려하는 교육 감각을 살리는 교육 / 놀이와 재미를 통한 교육 / 삶과 깨달음의 교육									
교육평가	아이의 몸·마음·영혼의 평가 / 아이들의 삶 전반에 대한 평가 발달·변화 지향 평가보다 '지금 여기' 지향 평가									

출판 책자: 임재택(2005). 생태유아교육개론. 서울: 양서원.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제3판]. 파주: 양서원. [부록1]

임재택 외(2008).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산: 공동체.

임재택 외(2010).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일산: 공동체.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2005). 생태유아교육전집. 서울: 공동체.

3.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다양한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꽃에 비유된다. 그 생명나무는 생태유아교육의 철학적인 사상이 굳건한 뿌리를, 생기(生氣) 왕성한 아이가 기둥을, 아이를 신명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꽃을 이루고 있는 나무이다. 여기서는 생명나무의 꽃인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명	출판 책자
1	산책 프로그램	임재택 외(1999). 애들아 산책가자. 양서원 하정연 외(2009).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산책. 공동체
2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3). 선생님 텃밭가요. 양서원
3	세시풍속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1). 선생님 세시풍속이 뭐예요. 양서원 하정연 외(2009).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세시풍속. 공동체
4	명상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3). 선생님! 우리도 명상할 수 있어요. 양서원
5	몸짓놀이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4). 몸짓으로 자라는 아이들. 양서원
6	손끝놀이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2).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양서원
7	절제·절약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2). 우리가 아껴쓰고 나눠쓸래요. 양서원
8	노인·이동상호작용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1). 할아버지·할머니 함께 놀아요. 양서원
9	도시·농촌교류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8). 도농교류 프로그램. 공동체
10	생태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하정연 외(2006). 유아 식생활 교육. 공동체
11	생태요리 프로그램	하정연 외(2006). 아이들이 차리는 생명밥상. 공동체
12	생태미술 프로그램	하정연 외(2005).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 양서원. 하정연 외(2008).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증보판]. 양서원.
13	바깥놀이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2). 선생님! 바깥놀이 해요. 양서원
14	초기적응 프로그램	임재택 외(2003). 초기적응, 이렇게 도와주세요. 양서원
15	생태문학 프로그램	김은주 외(2010). 생태그림책 100선. 공동체
16	자연물놀잇감 프로그램	김은주 외(2008). 흙돌꽃나무와 함께 크는 아이들. 공동체
17	자연건강 프로그램	출판 예정
18	생태과학 프로그램	출판 예정
19	운동 프로그램	출판 예정
20	생수마시기 프로그램	출판 예정
21	소금(죽염) 양치 프로그램	출판 예정
22	큰절하기 프로그램	출판 예정

4.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의 활동

1) 생태유아교육 이론정립을 위한 학술연구

-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및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 생태유아교육 실천기관의 설립 운영

-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설립 운영(1995년 3월 개원)
-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1995년 3월 개원, 영유아 약 200명)
- 부산법원어린이집 위탁 운영(2007년 3월 개원, 약 90명)
- 양산부산대병원 어린이집 위탁 운영(2010년 5월, 약 40명)

3) BK21 생태유아교육 사업 - [부록2]

- 사업명: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생태유아교육 사업
- 책임 및 참여교수: 임재택 교수 외 5명의 유아교육과 교수 전원

5.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활동 현황

1) 학술대회 개최

2002년부터 매년 2회(춘계, 추계) 개최 [부록3]

2) 학술지 발간

2002-2007년 년 1회, 2008년 년 3회, 2009년 이후 년 4회; 등재후보지

3) 생태유아교육 연수과정 운영

(1) 월례 생태강좌 개최

- 시기 : 1998-2003년, 2009-2010년 [부록4]
- 대상자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수, 학생

(2) 생태유아교사 자격연수

- 생태유아교사 3급 자격과정(75시간) 운영
(부산, 울산, 순천,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등 전국 확산)

- 생태유아교사 2급 자격과정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생태유아교육 강좌 개설 운영)

(3) 생태유아교육 해외연수

- 시기 : 199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회(하계, 동계) 개최
- 국가 및 기간 : 주로 일본의 생태유아교육기관, 3박 4일
- 대상자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수, 학생 등 약 40명

6. 전국 생태유아공동체 현황

1) 취지

- 아이살림·농촌살림·생명살림의 구호를 내걸고
- 2002년 3월부터 시작한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에게
-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먹이는 활동을 하는 생태공동체운동 단체

2) 활동 현황표

공동체명	지역	설립 연도	회원수	주요 프로그램	매출액
(사) 생태유아공동체	부산 울산	2002.3	- 유치원 어린이 집 총 186개원 - 초등학교 120 개교	교사연수, 원장연수, 학부모 교육, 농촌체험활동, 초등학교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생협매장 '아이밥상'운영	연간 35억원 (2009년 기준)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서울 인천 경기	2002.9	총 304개원(유 치원 66곳, 어 린이집 238곳)	교사연수, 원장연수, 원감연 수, 가을걷이 한마당, 벼룩 시장, 지리산생태기행, 움직 이는 교육사랑방(부모교육) 생협매장 '아이밥상'운영	연간 30억원 (2009년 기준)
대구 생태유아공동체	대구	2003.10	총 150개원	먹거리공동구매, 생태유아 교육, 생태교육기관탐방	
전북 생태유아공동체	전북	2007.6	총 100개원	도농교류사업, 체험활동, 예 절교육, 교사교육, 원장연수	
광주전남 생태유아공동체	광주 전남	2005.3	총 26개원	상하반기 교사교육(숲교육 등), 원장연수(복유럽), 벼룩 시장, 가을 추수, 모내기	연간 5억원 (2009년 기준)
대전충남 생태유아공동체	대전 충남	2008.12	총 32개원	월례강좌, 원장아카데미, 단 오행사, 부설교육원 운영	
제주 생태유아공동체	제주	2004.10	총 24개원	연 2회 부모교육, 교사교육, 생태유아지도자과정	

3) 활동 성과

- 전국 810개 유아교육기관과 120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친환경 유기농산물 공급
- 전국 최초의 생태적 식생활교육 운동 전개
- 밥상머리교육, 현미오곡밥 먹이기, 텃밭가꾸기, 농촌체험, 세시풍속 행사 등에 호응
- (사)생태유아공동체 수상 : 농림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공동상 (2006년 친환경농업대상), 무위당 장일순 추모 제1회 생명운동상 (2007)
-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모집 시 약95%가 생태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산책, 텃밭가꾸기, 친환경유기농, 세시풍속 프로그램), 유치원·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생태건축도입

제1장 생태유아교육의 성격

- 생태유아교육의 개념, 본질, 기본체계
- 생태유아교육의 이념 및 방향, 특성

제2장 생태유아교육의 배경

- 시대·사회적 배경, 사상적·철학적 배경, 심리학적·신과학적 배경
- 국내외 생태담론과 생태유아교육의 흐름, 학문의 생태적 접근 동향

제3장 생태유아교육의 기본관점

- 세계관, 아동관
- 발달관, 교육관

제4장 잉태, 태교, 출산, 육아

- 잉태, 태교
- 출산, 육아

제5장 생태유아교육과 생명의 의식농(醫食農)

- 생명살림의 길, 아이들 건강과 영양의 실상
- 아이들 건강과 생명의 의식농, 생태유아공동체 운동

제6장 생태유아교육과정

- 생태유아교육과정의 성격
-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교육내용 및 활동, 교육방법, 교육평가

제7장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제8장 생태유아교육과 생활공간

- 생태유아교육과 생활공간의 개념, 유아교육기관의 생태건축 방안
- 생태적 실내·외 공간의 구성 및 활용, 생태적 비품 및 교재·교구의 성격

제9장 생태유아교육과 교사

- 생태유아교사의 자질과 참모습
- 생태유아교사의 역할과 태도, 생태유아교사의 성장과 교육

제10장 생태유아교육과 부모

- 현대 부모와 가정교육의 위기
- 생태적 부모의 자질과 역할, 생태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제11장 생태유아교육의 과제와 전망

- 생태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
- 생태유아교육의 과제와 전망

[부록2] BK21 생태유아교육 사업 현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생태유아교육사업팀 현황

사업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적 소양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인력 양성 - 맘을 홀리는 사람, 스스로 몸 공부, 마음 공부, 영혼 공부를 실행하는 사람 -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연구 					
사업 목표	실천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생태유아교육분야 연구, 대학 특성화, 생태유아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생태유아교육 서비스 지역과 단체들에게 제공, 생태유아교육 모델 제시					
사업 기간	2006.3.1-현재 진행중					
참여 인원	팀장	임재택				
	교수	정계숙, 조희숙, 황해익, 임부연, 김은주(07.3-)				
	신진 연구인력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김은주	정지현	이소영	노진형	강신영
대학원생	박사 과정	4	5	5	6	6
	석사 과정	3	0	0	1	0
구분	항목	내용				
교육	생태유아 교육 과목	생태유아교육연구, 생태유아교육과정연구, 유아영성교육세미나, 생태유아교육 사상 및 철학, 한국전통사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건강안전교육의 생태적접근, 유아미학교육세미나, 유아교육의 생태학적 접근, 유아교육환경특론, 유아교육 현장연구, 생태유아교육평가연구, 유아수과학교육의 생태적접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생태이론 세미나 등의 과목 개설 및 운영 수업에 토론과정 강화, 사례를 통한 실제적 연구 도출				
	생태유아 교육 체험	귀농학교 농장실습, 생태강좌 수강, 생태유아교사 자격증이수과정 운영, 수업 시 실내외 통합체험 도입, 생태수업 연구대회, 자연주의적 놀잇감 제작 및 활용 워크샵, 생태적인 음악활동 워크샵, 텃밭 운영, 현장관찰 및 심층면담				
	생태유아 교육 기관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사단법인 생태유아공동체,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부산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소,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집 위탁운영, 부산법원어린이집 위탁운영				
연구	학술논문	Eco-Early Childhood Education(Young Children)의 국내외 235편				
	저서	생태유아교육개론,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 생태유아교육의 사상체계와 실천원리 연구, 유아교사교육-생태적 접근, 생태유아교육 실천 관련(산책, 텃밭, 노인아동, 손끝놀이, 놀잇감, 식생활교육) 등 23권				
	학술대회 발표	생태유아교육,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47건				

학술 대회 개최	2007~.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생태유아교육 월례강좌 개최 2008. 아시아교육개혁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공동) 2008. 울주군 평생교육 국제학술 심포지엄(공동), 고베대학 요시다 준코 교수 초청 심포지엄, 일본 자유보육과 한국 유아교육의 만남 세미나, 헬레나 노르베리-호 지 초청강연회 2009. 시시도 타케오 교수 초청 한일유아교육좌담회, EM으로 만드는 깨끗한 세상 워크숍 2010. 생태유아교육 숲과의 만남 학술대회
특이 사항	팀장.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초청강연 등 매년 20여 회 출강, (사)숲유치원협회 회장. 2006. UNESCO 방콕대회, OMEP 한국대회 발표 2007. PECERA 홍콩대회, IRSCL 교토대회, OMEP 방콕대회, 미국유아교육학회 시 카고 대회, UNESCO 방콕대회, 일본유아교육사학회, 일본아이스학회 발표 2008. PECERA, 동아시아환경사회학대회, 호주국제교육연구 학술대회, 세계철학대 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발표 2009. WHO, PECERA, ICGP 발표 2010. PECERA 발표
수상 실적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수상(팀장), Best Scholar Award(연구원), BK21 1.4차년도 우수 사업팀 선정

[부록3]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현황

년도	구분	주제	장소	참석인원
2002	창립대회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	부산대	약 400명
	추계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부산대	약 550명
2003	춘계	생태유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감신대	약 400명
	추계	유아교육 근본으로 돌아서기	부산대	약 500명
2004	춘계	우리 삶에서 찾는 유아교육의 지혜	광주대	약 700명
	추계	아이들의 신명 살리고 펼치기	부산대	약 600명
2005	춘계	생태건축으로 여는 아이들의 쉼터	부산대	약 600명
	추계	위기의 아이들, 그 실상과 대책	동국대	약 500명
2006	춘계	자연의 순리·조상의 지혜로 아이 키우기	부산대	약 500명
	추계	생태유아교육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구산업 정보대	약 700명
2007	춘계	한국유아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부산대	약 600명
	추계	생태유아교육, 내안의 영성을 찾아서	한남대	약 600명
2008	춘계	한국 유아교육,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부산대	약 500명
	추계	유아교육 공간, 아이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가	서울교대	약 400명
2009	춘계	한국 유아교육,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가?	부산대	약 450명
	추계	한국 유아교육과정, 아이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가?	동국대	약 750명
2010	춘계	유치원 교육과정개편, 아이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방안인가?	부산대	약 500명
	추계	식생활교육 국민운동의 출발점 영유아 식생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도청	약 400명

[부록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9-2010년 월례강좌 현황

● 강좌 일정(2009년)

강좌	일시	강사	주제
1강좌	3월 27일(금) 18:30-20:30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이 시대 아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강좌	4월 24일(금) 18:30-20:30	전세일 (포천중문대학 대체의학대학원 원장)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의학
3강좌	5월 29일(금) 19:00-21:00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생태유아교육의 새로운 상상력, 핀란드·스웨덴 교육에서 배운다.
4강좌	6월 19일(금) 19:00-21:00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소장)	아이들의 몸·마음·영혼을 위협하는 조기미디어학습 바로보기
5강좌	7월 24일(금) 19:00-21:00	이진아 (생명·생태관련 연구저술가)	위기의 지구, 아이들의 미래는 있는가?
6강좌	8월 28일(금) 19:00-21:00	도법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단순 소박한 삶과 생명살림의 교육
7강좌	9월 25일(금) 19:00-21:00	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 전 국제신문 환경전문기자)	지구시대, 생태도시 만들기 : 의·식·주·육아 생활의 변혁
8강좌	10월 30일(금) 19:00-21:00	현병호 (민들레 발행인)	학교 낫설게 보기, 교육 뒤집어 보기
9강좌	11월 27일(금) 19:00-21:00	허남혁 (한국카톨릭농민회 정책연구위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10강좌	12월 18일(금) 18:30-20:30	강수돌 (고려대경영학과교수)	살림의 경제, 행복한 교육

● 강좌 일정(2010년)

강좌	일시	강사	주제
1강좌	3월 25일(목) 19:00-21:00	장두석 ((사)한국민족생활문화 연구회 이사장)	자연의 이치와 조상의 지혜로 빛은 생활건강법
2강좌	4월 24일(금) 19:00-21:00	황성수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몸은 편식을 원한다
3강좌	5월 29일(금) 19:00-21:00	황민영 ((사)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위원장)	식생활교육 국민운동,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
4강좌	6월 19일(금) 19:00-21:00	도말순 (양산 YWCA 회장)	작은 실천·큰 살림, EM이 사람과 지구를 살린다
5강좌	7월 24일(금) 19:00-21:00	김기원 (국민대 산림환경 시스템학과 교수)	몸·마음·영혼의 고향 숲, 문화 그리 고 아이
6강좌	8월 28일(금) 19:00-21:00	서정홍 (농부시인)	농부가 들려주는 생명 이야기
7강좌	9월 25일(금) 19:00-21:00	최윤철 (부산 금성초등학교 교사)	작은학교·행복한 아이들 - 돌봄·배움·어울림이 있는 금성초등학교 이야기-
8강좌	10월 30일(금) 19:00-21:00	정영숙 ((사)한민족 생활문화 연구회 부산 지회장)	생명살림의 길, 약이 되는 밥상 이야기
9강좌	11월 27일(금) 19:00-21:00	서정록 (작가)	북미 인디언에서 찾은 영성 이야기
10강좌	12월 18일(금) 19:00-21:00	이현주 (목사)	우리 아이들을 하느님으로 모시자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철학과 실제”에 대한 토론

최윤중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장

- 녹색성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방향이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
- 사회적 관심과 주목이 녹색에 맞추어진 것은 우리입장에서 고무적임.
- 특히 교육에서 녹색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지속성과 중요성에 있어 더욱 증대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녹색인재양성을 위해 보육·교육과정이 답아야 할 철학은 교육학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 그러나 실천부서로서 이에 대한 고민과 이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과제
- 발전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난 200여 동안 환경문제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인간생활에 많은 문제야기하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인간생활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은 근래
- 선진국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인위적 산림파괴를 지양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공원 등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고 숲속유치원 등 자연환경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1990년 중반부터로 문제점 해결에 나선 것은 극히 최근임.
- 암울한 미래를 타개하기 위해 현대사회는 근본적인 특성을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에 와있고 그 대안으로 현재 녹색성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한 녹색인재 양성이 주요과제로 떠오름.
- 녹색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체계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점임.
- 산업혁명, 대량소비시대에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모두 사물을 조종하고

- 변화시키며 대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을 교육을 통해 후대에 전파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물, 결국은 지구환경을 파괴하여 왔음
- 결론적으로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음.
 - 녹색환경에 대한 교육이 마땅히 생각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교육 체계에서는 일년에 한번 소풍을 가거나 하는 정도로 우리의 교육은 콘크리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우리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임.
 - 그나마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을 자연스럽게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때는 유치원 뿐임.
 - 우리나라 입시제도 및 교육제도와 너무도 다른 과정을 하고 있는 유럽에서 조차, 콘크리트 교실내 교육에 대하여 변화된 생각을 갖게 되었음.
 -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나 유아들을 자연 상태에서 뛰놀게 하는 교육방식을 1990년대 중반 시작하여 지금은 약 700여개로 증가하였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위스 등 북부, 중부 유럽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에서 애쓰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
 - 이런 과정에 숲유치원협회가 만들어졌고 성북구 북한산공원과 송파구 오금공원에서 일부 유아들의 숲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우리의 고민은 유아들이 녹색생활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부분 사회, 특히 부모들의 인식 전환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현행 제도하에서 어떻게 보면 일탈된 교육과정을 선보이는 것으로 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교육제도만 있고 교육생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음.
 - 우리의 세대 또는 시골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교육받지 않아도 숲속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 과일 등을 선별할 수 있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었으나 현재는 교육으로 그럴것이다라고 인식할 뿐임.

- ‘따뜻하다’와 ‘따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음. 책으로 배우는 것과 몸으로 자연속에서 만지고, 보고, 느끼는 오감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우게 하는 자연주의 체험교육은 많은 차이가 있음.
-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체험중심의 학습은 흥미를 유발시켜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력 이외의 능력을 발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연, 숲속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교육은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다양한 지적능력 발달에 도움을 줌.
- 서울시에서는 2000년대부터 숲속여행이라는 행사를 통해 도시의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문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자연에 대한 체험을 한다는 것에 아이들과 부모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금은 숲속유치원과 같은 대안적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IQ(지능) 못지 않게 EQ(감성)도 중요하고 SQ(사회성)도 중요하다는 논리도 일반화 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봄.
- 하지만 프로그램 도입 초기 단계이고 국외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 선별없이 도입하기에는 국내 사정이 허락지 않기에 서울시에서는 유아숲체험장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함.
- 사업을 시행하기 알맞은 장소 선정 등 여러 제반 여건을 현재 검토 중이며
- 서울시에서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늘 푸른 꿈을 꾸면서 자유와 창의성을 높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뿌리내리게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가치가 더욱 발휘되기를 기대함.